

# SUMANHUI

수만위기숙학원 소식지

## 5월 가정의달 특집!

부모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학과 수김T 인터뷰

4월 이투스 모의고사 진행

나의각오! 나의 꿈! 나의 목표!

2023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

꿈을 위해 인내하는 공간 독서실

5

2022

# 5월의 소식

내 아들 딸에게 보내는 마음 ----- 3p - 20p

우리의 목표, 다짐 ----- 21p - 36p

수학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 ----- 37p - 40p

대입 논술 전형 인터뷰 ----- 41p - 42p



**죽도록 공부하기 자습실 ----- 43p - 46p**

**4월 모의고사 ----- 47p - 54p**

**5월의 수만휘 풍경 ----- 55p - 56p**

**5, 6월 일정안내, 광고 ----- 57p - 58p**





#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보내는 부모님 마음



##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어린이날 선물을 바라는 너무나 귀여운 어린이들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때론 어리광도 부리며 마음껏 성장하여 학생과 어른의 경계 즈음에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어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경계선을 넘은 순간은 빛나는 나의 인생을 위해 어렵지만 한 번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었을 겁니다.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부모님이 대신 걸어주는 길이 아니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지해 주겠지만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내 아이가 혹여나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학원 홈페이지 격려의 편지나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전화 통화 때마다 진심을 다하여 응원해 주고 계시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좀 더 특별하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의 편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는 예쁜 편지지에 출력하여 어버이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몇몇 편지를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편지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 사랑하고 응원하는 아들 김민제님께 \*^^\*



항상 정도 많고 배려심도 많은 믿음직한 우리 아들 민제님께^^  
아부지 태어나서 50살 넘도록 처음으로 우리 아들에게 편지를 다 써 보니까 ㅋ

몇일전에 아들 봤었는데 벌써 또 보고 싶구나! 마냥 어린이 같았는데 제법 성숙해 졌더라 ㅋ ㅋ  
민제님 떠난 방에서 아부지는 노트북도 하고 편히 잘 쉬고 있는데 우리 민제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민제야 수능이 몇달 남지 않았지? 한 200여일 남았나?  
너도 수능을 한 번 치러봐서 잘 알겠지만, 수능이란 시험으로 민제의 능력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그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란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능을 치러야하고 수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앞으로 민제의 다양한  
도전과 경험 할 것 중에 일부이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이 민제를 기다리고 있단다.

아부지도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학력고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미적분을 왜 해야하지? 내가 왜 영어단어  
외워야 하지? 모르면 그때 똥똥" 수많은 질문과 고민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당시에는 방향도  
좀 하고, 약간의 이탈도 했었던단다.

나중에서야 그 과정이 사회에 나가기 위한 발판이란 것을 조금 늦게 깨달았는지 ㅋ ㅋ 언젠가 민제가  
아주 잠시 방향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제야, 얼마남지 않은 수능 기간, 정말이지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하지 않을, 다시 오지 않을 민제의  
후회없는 삶을 살기 바란다. 민제의 멋진 미래의 꿈을 위해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위대한 사람은 단번에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 때, 꿀잠을 잘 때 그 고단함과  
피눈물을 참고 일어나 쉬지 않고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다.  
민제의 앞으로의 멋진 꿈도,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엄마 아부지도 민제 많이 보고 싶지만 당분간 참으려고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엄마 아부지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아들 보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란다. 민제도 당분간은 모든 것을 참고  
공부에 집중하길 바래!

끝으로,  
민제가 더 큰 뜻을 위해 재수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선택한 것을 잘 알기에 민제가 더욱 더견스럽고 응원하고  
싶구나! 엄마, 아부지도 항상 아니 죽을때까지 우리 멋진 아들 응원할테니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자꾸나!

우리 아들 힘내고 화이팅 하자. 아자 아자 아자 화이팅!

사랑하는 아부지가  
사랑하는 아들 민제님께 드림

## 사랑하는 내 딸 나연이에게

봄이 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무심코 지나쳤던 새싹, 벚꽃, 개나리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아닐까? 우리 나연이가 꼭 대학가면 석촌호수 벚꽃길을 걸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못가고 또 재수하느라 못가고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

2월달 재수를 생각하기 전부터 수만휘 기숙학원을 선택하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엄마는 재공반을 갔으면 했고, 너는 핸드폰 제어가 안될 것 같다며, 수만휘 기숙학원을 선택했었는데 후회없는 선택이었는지 궁금하구나!

오랜기간 떨어져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또 한번 엄마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었는데 너가 원했던 재수이기에 더 간절했을 것 같아서 너가 생각하는 곳으로 결정을 했었다고 생각한다.

나연아, 늘 사람은 같은 길을 가도 생각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노력과 결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 달라질꺼라 생각된다. 가끔 부모라서 결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결과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공부하는 너의 입장과 부모 입장은 서로 다를테니까!!

현명한 부모님들은 과정을 더 높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는 늘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 같아~~ 얼굴보고 이야기도 못하고 전화너머로 너의 소식 들으면서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엄마 입장을 이야기 하다보면 나연이가 들 때는 성적 그리고 실수등 나연이 너가 더 속상할텐데 하면서 전화 끊고 후회한 적도 있곤 하다. 그런데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수능일에 맞춰 부족한 부분 계획 잘 세워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지난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말고 알겠지? 너를 재수학원에 보내놓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일들이 있는데 말이야. 너무 나연이 너를 바르고 강하게만 키울려고 했던 엄마 생각들이 지금와서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네.

너무 어린 나이에 나연이를 낳고, 엄마도 덜 성장한 상태에서 엄마가 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해. 시간이 지나고 너도 크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니까 더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도 이렇게나 많은데 말이야. 지금 엄마는 너랑 이렇게 마주하고 웃을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다.

나연아, 우리 수능끝나고 마주보고 서로 웃을 수 있도록 더 노력 하자. 엄마는 직장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나연이는 재수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계획표 세워가면서 성실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가 한달, 한달이 두달되고, 10달이 되어 수능날 좋은 결과로 이어질꺼라고 생각한다.

이제 수능이 22일 남았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간다~너와 떨어진 시간도 벌써 2달이 넘었네. 참 배바르다. 지나간 시간 후회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자!! 노력만이 살길이라 생각하고 앞만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알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수만휘 기숙학원에서 후회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련없이 떠나는 걸로 하자!

『후회없이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미련도 없다는 말 명심하고』

우리 나연이가 수만휘에서 수능만점 시험지 휘날리기를 바라면서...

2022. 04. 19

너무 예쁜 딸 나연이에게 친구같은 엄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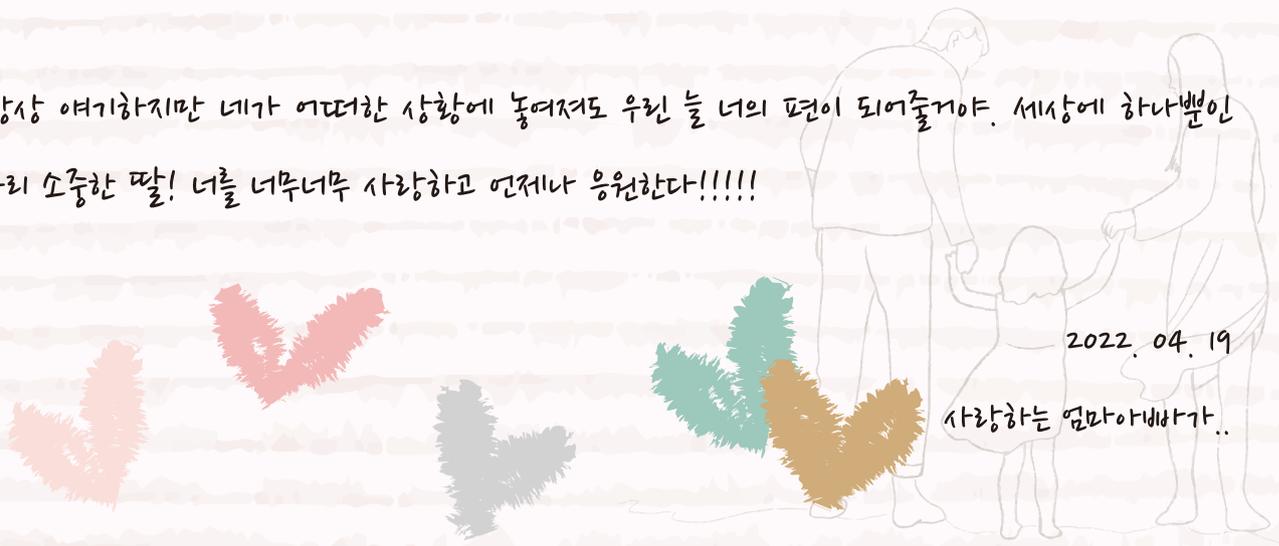
사랑하는 우리딸 수민아... ^^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 라는 큰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정말 힘들었지?

우리가족이, 특히 너와내가 한번도 떨어져 지면적이 없었기에 엄마는 너를 기숙학원에 보내기로 마음먹기까지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우리딸이 다시 힘을내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입소 결정을 내릴때 얼마나 대견 했는지몰라. 아름다운 너의 스무살 대학 생활의 시작 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지금의 너의 시작도 멋지다는것을 기억하렴. 재수결심도, 기숙학원 결심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우리딸이 고등 3년을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보내고 노력해온걸 엄마는 잘 아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고 잘 견뎌내주어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어릴적부터 공부 잘해서 만점엄마 소리도 듣게 해주었고 항상 예의 바르고 말성한번 부린적 없어 동네 이모들 부러움도 많이 받았고 심성도 공고 배려심도 많고 의리도 있고... 엄마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너때문에 행복하고 감동이야~ 입소할때 수능까지 10달을 어떻게 보내야하나 걱정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 왠지 남은 7개월은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구나. 기숙학원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너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너를 한단계, 두단계 성장 시켜 줄 테니까 하루하루를 후회없이 지내길 바란다. 절대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단계씩 올라가보자! 네가 정상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엄마, 아버지가 기숙사선생님들이 도와 줄 테니 우리 한번 믿어보렴!!!

항상 얘기하지만 네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 우리 늘 너의 편이 되어줄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소중한 딸!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언제나 응원한다!!!!



## 사랑하는 아들 정복아...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마다 '심쿵'해지는 것을 수줍게 고백해준다. 긴 기다림 끝에 너를 처음 만나게 된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떨어져서 있는 게 아마 처음 일거야. 너를 처음 품에 안은 그날은 잊을 수가 없단다.

어린 시절 내가 너에게 했던 말 생각하니?

"왜 이렇게 엄마한테 늦게 왔어? 어떻게 엄마에게 왔을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늘에서 오래 내려다보니 엄마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왔지"라던 어린 너의 대답이 엄마의 가슴을 울렸고 그 이후 나는 너와 지독한 사랑에 빠졌단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내겐 꿈만 같은 축복이었어. 늘 묵묵히 엄마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해해주었던 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함께해온 19년 중 2021년 수능과 합격 발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 떨림이 다시금 느껴져. 너의 생각과 고민을 물어보기에는 서로가 조심스러웠고 눈치가 보였어. 합격한 두 대학에 등록을 해 놓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도 된다고 하고 대답을 기다리던 그때, 한번 더 도전해보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기까지 너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사실 우리 모두 너의 능력과 가능성을 생각 했을 때 아깝고 속상했기에 재수 결정이 무척 기뻐했지만 원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 학원을 알아보고 수만휘 학원으로 입학 해 놓고도 또다시 그 길을 가야 할 네가 안쓰럽고 마음 아팠어. 하지만 누군가의 의사가 아닌 너의 결정과 판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네가 대견하고 고맙다. 지금 네가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다 싹을 틔울 순 없겠지만 네가 흘리고 있는 땀방울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의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해.

너를 보내고 돌아온 날부터 엄마는 너를 위한 기도로 매일 아침을 연단다.

'아들의 하루가 평안하고 참되길..'

그 기도와 함께 나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다. 어제보다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을 너와 함께 엄마도 그 길을 걷고 있을게.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 너는 늘 내게 기쁨이고 행복이야

아들 화이팅!



너의 영원한 베프 엄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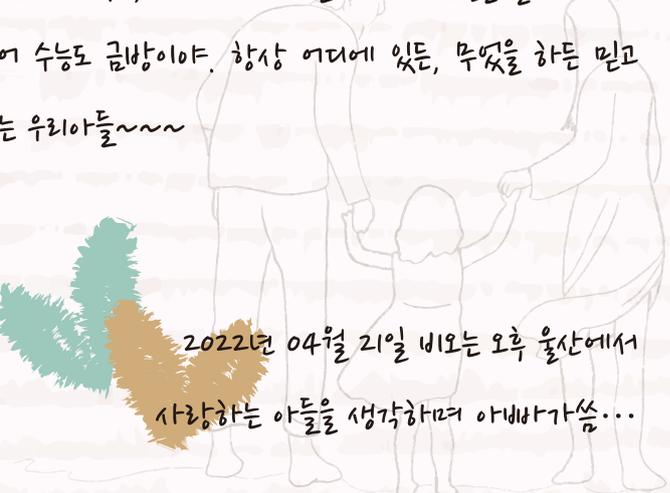
## 사랑하는 아들 우성아~

우성아.. "아빠~재수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나? 우성이가 기숙학원 입소하던날 헤어지며 아버지한테 한 말이었어. 아버지를 울격하게 한 말이었고, 너의 의지를 보여준 말이었고, 너가 성인이 되었음을 보여준 말이었다고 아버지는 생각해. 엄마가 곁에서 이것저것 챙겨서 학교 보낼때가 몇거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되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등지를 떠나보내는 어미새의 쓸쓸함이 동시에 느껴지더구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네가 태어나면서 나는 아버라는 인생 최고의 명함을 받았고 지금도 그명함에 걸맞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중이야.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고마워~ 진심으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말 알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내삶을 온전히 내것으로 살수있는길 이라고 생각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능으로 원치않는 대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지나 결심하고 도전하는 너를보며 어떠한 결정을 하든 아버지는 항상 너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할거지만 이번의 결정은 너무 잘한것 같고 1년이란 시간이 더 나은 내일의 너를 만드는 노력의 시간이라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옹하길 바래. 아버지가 고생하는 네게 위로하는 말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또 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들만 해서 미안하긴 한데. 재수하러간 너에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기고 놀다와~ 라는 말은 못하지 않겠니.

"피할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길수 있는 여유를.." 이라는 문구가 있어, 어차피 해야할거면 그 힘듦을 즐겨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긍정의 문구인것 같아. 벌써 두달이 넘어 수능도 금방이야. 항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믿고 응원하는 가족들이 있다는걸 잊지말고 힘내자 사랑하는 우리아들~~~



2022년 04월 21일 비오는 오후 울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가쓰...

사랑하는 올 딸 유진아...

엄마에 첫아이 2003년 7월 1일 태어나서 신기하기만 했던 너로 인생의 첫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한다. 고3 때 시간들이 사진처럼 지나가는구나!

말로만 듣던 고3 수험생과 엄마 하는게 없이 몸만 피곤하더라 엄마는 2 재수를 선택하고 기숙학원 엄마도 너에게 권했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엄마 의견 따라주니 고맙다. 공부하는게 힘들지만 잘 하고 있다는 엄마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유독 낯을 가려서 힘들텐데 공부하는거 하나 목적으로 선택했던 너.. 시험 본 결과물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널 보면서 다시 공부는 더 힘들 텐데 생각했었다.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엄마 올 딸도 그랬으면 했는데 공부 시작하는 그 날로부터 엄마 맘도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길고 시련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엄마는 수많은 선택에 시간에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선택하고 행동했던거 같아. 실수를 하면 다시 만회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인생이 그런거..

엄마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학생 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 또 공부가 제일 쉬운거야, 사회생활이 더 힘들다는 말, 그런 말들은 유진이 너에게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아 비교도 안되겠지 엄마도 너 나이에 그랬으니.. 이해하고 공감한다. 높은 산을 올라가야 더 넓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듯이 우리에게 현재 넘어야만 볼 수 있는 기쁨 힘들게 산을 건너야한다. 너가 후회없이 했고 너가 하고싶은 공부 선택해서 대학을 가는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주변에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말, 주변에서도 유진이가 그런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 다들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에 차이도 크니 성실하게 열심히 지키길 바란다.

엄마 딸은 훌륭하게 잘 하고 엄마 아빠도 같이 호흡하면서 동행할꺼니 걱정마라! 너가 하고 싶은거 원하는거 공부하면 행복하잖아. 엄마 아빠는 그런 유진이였으면.. 누구랑 비교하거나 얼마만큼이 중요하진 않으니깐 생각도 바르고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쑥쑥 성장하길 바란다.

5월에 200일시간 성적이 만나와서 조금해 할텐데 잘 할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한다는거 알고 차분히 하면 돼!

거북이와 토끼 경주처럼 지금 느는다고 조금해 하지말고 천천히 매일 꾸준히 하면 잘될꺼야!  
아빠 엄마도 너가 힘내기 위해서 항상 씩씩할꺼야



사랑한다 내딸 많이  
벅벅처럼 깨끗하고 착한 내딸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  
사랑하는 울 아들 경민아!!!

언제나 내게 얘기하던 네가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얘기했을 때 걱정도 됐고 한편으로는  
늠름하고 든든해 보였어. 어느새 훌쩍 자라 자기의사를 결정할 나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니 새삼 세월 참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무수한 날들을 고민했을 널 생각하니 안쓰러웠지만 확고한 네  
생각을 존중하려 널 믿고 보낼 수 있었다.

어느덧 봄도 벚꽃향기만 남기고 슬쩍 지나가는데, 입소한 지 2달 가량 지난 기숙사 생활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나가는 널 보니 대견하구나.

요즘도 퇴근하면 볼 거진 텅 빈 네 방을 보면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다. 괜스레 침대에도 한 번 앉아보고  
베게 뉘셔도 맡아보고... 아빠도 노인네가 다 됐나보다. 좀 쪼질까?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 땐 이해가  
될 거다 이놈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참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네 고통의 무게를 아빠 백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모르겠지... 그래도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단다. 내년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고 힘내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란 말이 있다. 백세시대에 일 년 늦은 출발에 조급할 필요는 없어. 인생은 단거리  
종목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라네. 비바람도 맞고 웅덩이도 지나고 따가운 햇빛도 견뎌내야 하지.  
중요한 건 쓰러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달리느냐 포기하느냐는 거란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건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네.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거라고 했지?  
울 아들 힘 미쳐보자!!!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는 것까진 안 바라마. 네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길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랄게.

그리고 내년엔 대학가면 예나가 제주도 가족여행 가잔다. 갈 수 있게 도와주라...

하쿠나마타타~ 걱정할 거 없어 다 잘 될거야~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어느 늦은 봄날에...

성준아...

길게만 느껴졌던 시린 바람의 느낌도 이제는 벚꽃의 흩날림을 뒤로 한채 봄의 기운으로 다가온거 같아.

인생의 과정들이 때 순간 순간의 결정이 싹이고 싹여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공부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고 괴롭겠지만 새로운 길을 잘 해내가는 큰 자양분이 될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까 같아. 단순히 과거에 공부했던 부분을 무의미하게 반복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워 나가면 그 변화는 느리지만 나타날거라 생각해.

항상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느린 과정이어서 변함없는 성격에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생길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질거야. 어찌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그걸 실천해나갈 수 있는 의지와 집념이 결과를 다르게 보여줄거 같아.

성준이가 어떤 직업을 갖게되고 어떤 사람으로 커 나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의 인내심만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 11월의 파이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자꾸 나 자신을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주지만 거꾸로 그런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면 11월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겠지. 물론 이런 과정들은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의 소중한 시간들이 싹여서 가는 거겠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순간.

어찌보면 길고 긴 과정이지만 짧은 몇 개월의 과정일 수도 있어. 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추진력을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체력을 유지하면 금상첨화겠지. 항상 내 자신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번 아픔을 잘 생각해서 와신상담하는 나머지 기간을 잘 보내기 바란다.

공부할때 집중, 쉬 때는 확실하게!!

공정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성준이 파이팅

## 우리가족의 분위기 메이커 콩순이(정은)~~

우리정은이 마음씨도 이쁘고 어른들 친구들 속에서도 인기짱 춤도추고싶고 음악도 듣고싶지만 잘 이겨내고있다~~

재수 힘들겠지만 1년다시 고3시작하는것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수를 해본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높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 얻는것이 많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속 고민만 걱정만 하지말고 다 잘 될거야.

걱정은 이제 그만 잘되고 못되고는 그 다음 문제다. 고심하는것보다 어떤것이든 100개를 공부하면 그중 뛰어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과정도 고통도 이겨내는것도 정은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엄마는 생각해

정은아 너무 서두르지말고 천천히 완벽하게 살아가자~

살면서 만나게되는 수많은 일들중에 대부분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은이가 공부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반은 성공한거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정은아 스트레스 잘 극복하고 즐기면서 공부해

몸이 건강해야 공부의 능률이 높단다.

식사 거르지 말고 골고루 잘먹어 잠도 충분히 잘자고 꿀잠하고 하루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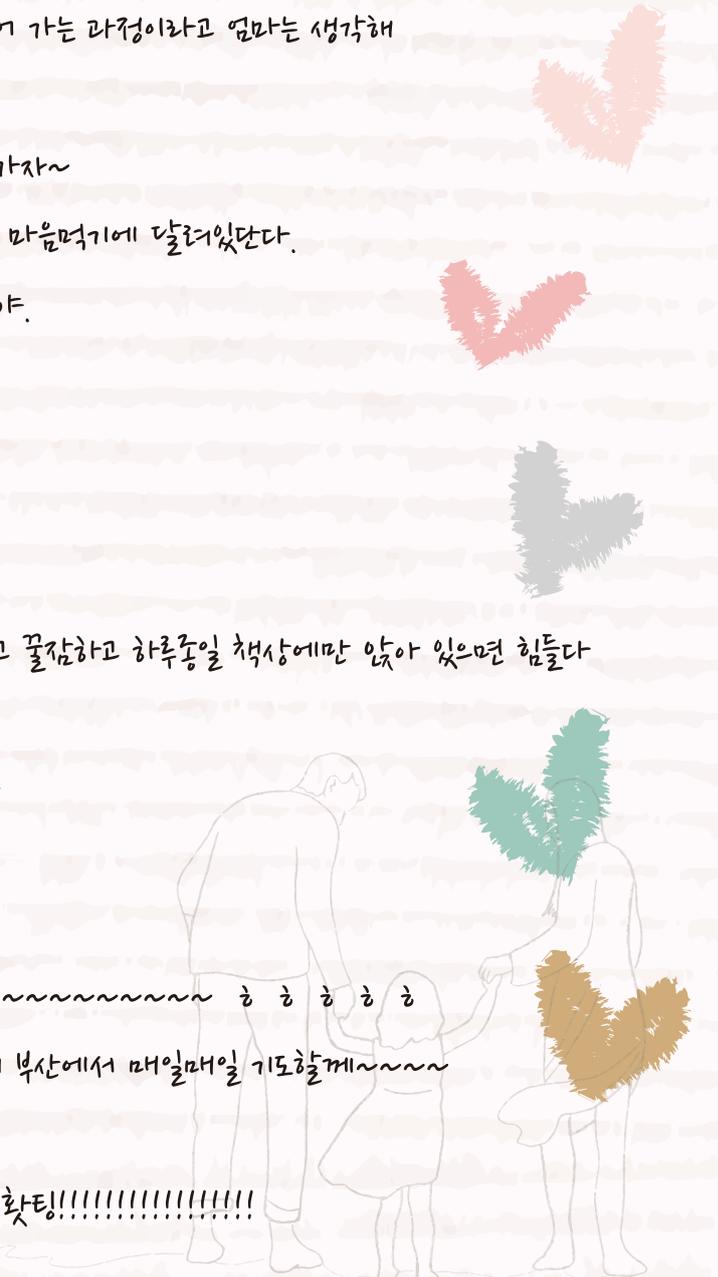
힘들때 춤도추고 운동장에 산책도 하면서 지내~~

앞으로 행복한 시간들만 기억하면서.....

경상도 엄마 아버지가 글로 표현을 할려니 어렵네~~~~~ ㅎㅎ ㅎㅎ

진짜진짜 정은이 사랑하고 보고싶고 울땀 잘되게 부산에서 매일매일 기도할게~~~~

사랑해~~~~~활짝웃는 그날까지 핫팅!!!!!!!!!!!!!!!!!!!!!!



현권아~

지천에 봄꽃이 흐드러져

화려함을 뽐내더니 보드라운 연새싹이 세상에 온화하게 봄을 더하고 있다.

내 아들 봄날도 봄꽃처럼 새싹처럼 찬란하게 피어났음 좋겠다.

어릴 때 당당하고 소신있던 큰 아들 모습 그대로 그 봄날이 너에게로 왔으면 한다.

군대부터 갔다와서 해보겠다고 말할 때 역시 내 아들이다 생각했다.

이제 너를 찾아가는구나...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매사 급한 성격의 엄마가 느긋한 아들을 기다리며,

사춘기 방황하며 너자신을 맘대로 내버려두던 너를 보면서,

언제나처럼 너를 믿고 기다리며 나를 다잡아보던 그 말,

또 한번 아들에게 해주고 싶네^^

너는 천천히 크게 피어날 인물이야

현권아~

아빠가 좋아하는 말 있지?

'진인사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받아들이면 된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재수학원에 가고 싶다는 미련,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 후면 결전의 날이 200일 남는다고 들었다

마음이 흔들리고 무거울 때, 별거 없다.

나고 자란 대구 말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 보낸다하는데,

엄마잔소리 안 듣는

서울로 가는 고성이다 생각하고 잘 견뎌보자

항상 건강 잘 챙기고

화이팅!이다

2022년 4월 22일  
현권아바라기 엄마가

자랑스러운 우리 딸 성은이에게

유난히도 불안하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향기로운 꽃도 피고 푸르른 계절이 왔네.... 성은이에게 작년 겨울은 결실을 맺지 못해서 막막하고 더욱 더 추웠을 거야. 첫 번째 임신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평생 너를 짊어 먹을까봐 스스로에게 찢찢해지는 것이야 말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모습을 너를 믿기에 기숙학원에 입소한다는 너의 선택을 엄마,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신뢰하고 재수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거란다.

작년 1년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불안해 하던 너를 생각했어. 지나가면 다 별일 아닌데..... 그때는 왜그리 불안하고 초초했었는지. 이제 그 곳에서 불안을 뛰어넘는 실력을 키워 언젠가는 과거가 될 그 곳에서 네가 미래의 너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버티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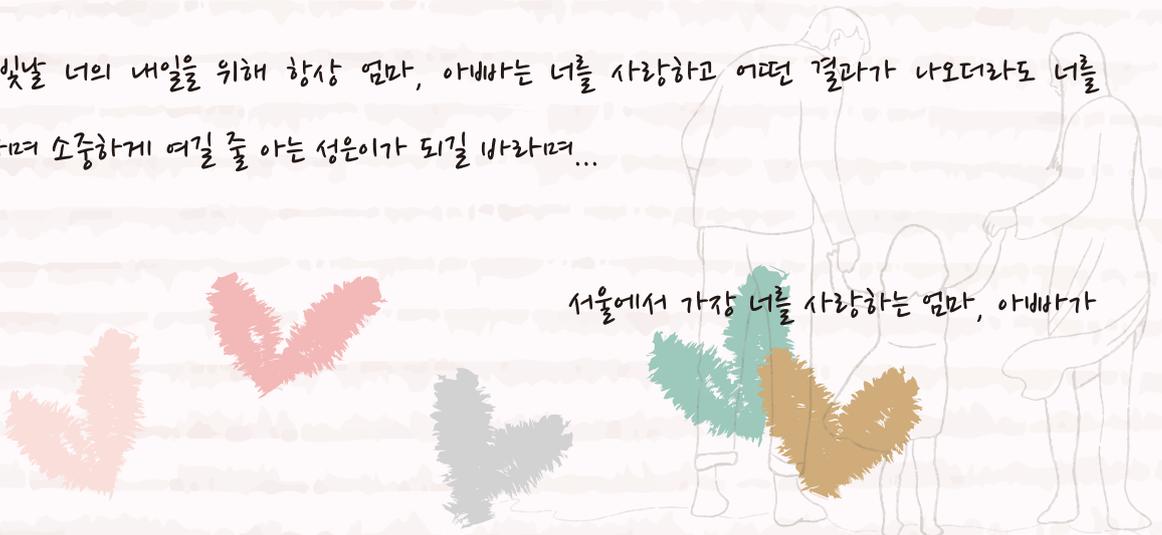
입시라는 무겁고 단단한 틀안에 너를 가두지 말고 가끔은 수만회에서 사귀어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고 감사한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유도 갖길 바란다.

“절실히 우너한다면 간절하게 노력하라”

우주는 네가 한 충량을 기억한다는 말을 믿지?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그 순간을 이겨내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말을 기억하고 기숙학원 이름처럼 수능 만점을 받아서 인터뷰하는 꿈꾸면서 매일 밤 잠들길 바란다. 후회없는 1년을 보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 꿈을 이루길....

가장 빛날 너의 내일을 위해 항상 엄마,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너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은이가 되길 바라며...

서울에서 가장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결아.

세상은 봄 꽃이 만연한데, 멀리 떨어진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  
조만간 무더운 여름이 우리 아들을 지치게 할텐데, 잘 이겨내길 바래.  
그리고 나면 금방 가을도 오고 결전의 11월도 올텐데, 겨울에 활짝 웃고 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엄마, 아빠는 항상 결이 응원하고 있어.  
그동안 준비한 너의 노력이 원하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구나.  
도중에 여러번 고비가 올거야. 그 때 마다 항상 우리 가족,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현명하게 잘 이겨내길  
바래. 3월에도 이겨냈듯이, 그리고 4월 휴가 복귀하는 날에도 그러했듯이  
힘들지만 꼭 참고 버티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사랑해~~ 우리 아들 !!!

결이가 너무나 보고 싶은 엄마, 아빠가 사랑을 꾸욱 꼭 가득 담아서 ~~

PS. 은찬이가 "오빠 하이팅!" 이라고 전해달래 ~

사랑하는 성민아...

..... 너의 일상은 굳이 전해들지 않아도 알지.  
다람쥐 쳇바퀴돌듯 그렇게 반복되는 오늘 또 내일.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분명 힘에 부치고 지치는 날도 있을 거야.

엄마가 하나 바란다면,  
불안하고 분주한 그 생활들 가운데서 잠깐씩이라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기를.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이 시간을 이겨내기를.  
무엇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있기를.....

사랑해, 성민아!  
2022년 5월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호준에게 ^^

창밖의 벚꽃 만개가 봄 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즈음....  
오늘도 무척이나 날이 좋단다.  
이렇게 좋은 날,  
한기가 도는 앞도 제대로 안보이는 컴컴한 터널 안을 무작정 걷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  
엄마의 맘도 무척이나 시리단다.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가 더 높고 더 넓은 미래를 위해서 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의 발밑은 진흙탕 일때니.....  
그래도 계속 걸다보면 곧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말 할수 밖에 없는 삶의 선배로서의  
조언을 받아 들여주길 바랄뿐이다.  
이 찬란한 계절은 곧 지나 갈 것이고 무더운 여름도 결국 물러 날 것이고  
힘들고 지겨운 시간을 방패삼아 목적지에 곧 도착할 것이다.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아들 호준이를 응원한다.  
지금 이순간은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고 있지만 결국은 이겨낼 것 이라고 .....  
올해 겨울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날들 이길 기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 보자.

사랑하는 성준아...

..... 성준이 자체로 엄마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멋진 아들이야. 항상 언제나. 성준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네 자신에게조차도 너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해. 더 잘 해내야지, 꼭 잘 해내야겠다는 부담감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그냥 매일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럴려면 스케줄을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매일 네가 계획한 스케줄을 따라 분량을 끝내고 자습실을 나설 때의 그 부딪힘을 더 자주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네가 꿈꾸는 곳에 가까워져 있을 거야. 더 높은 곳을 꿈꾸되 담대하게 천천히 나아가자.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사랑하고 사랑한다!  
창원에서 엄마가

우리 겸둥이 막내 진석아..

..... 진석아 세상에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게 있대 내가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으면 그 가치만큼의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고 해. 진석아 너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힘든시간을 견뎌내야하는게 이런 이유에서 아닐까. 지금은 어둡고 컴컴한 터널속을 걷고 있는거같지만 지치지않고 계속 걸어간다면 곧 터널의 끝에서 밝은 빛을 볼수 있을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생활수 있는 진석이가 됐으면 해. 이젠 당당히 어른이 돼가는 진석이의 의젓한 모습도 기대된다

매순간 진석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딸...가온~~~

..... 수능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인생은 결승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마라톤이며 대학에 들어가는 길목에 접하는 수능은 작은 고개이고 작은 굽이 일뿐이란다. 거칠고 치열한 세파 속에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너의 인생 여정보다 더 힘들고 힘든 삶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는 말기 바란다.....

우리 딸 가온이의 인생의 한걸음 한걸음을 응원한다. 사랑해^^ 아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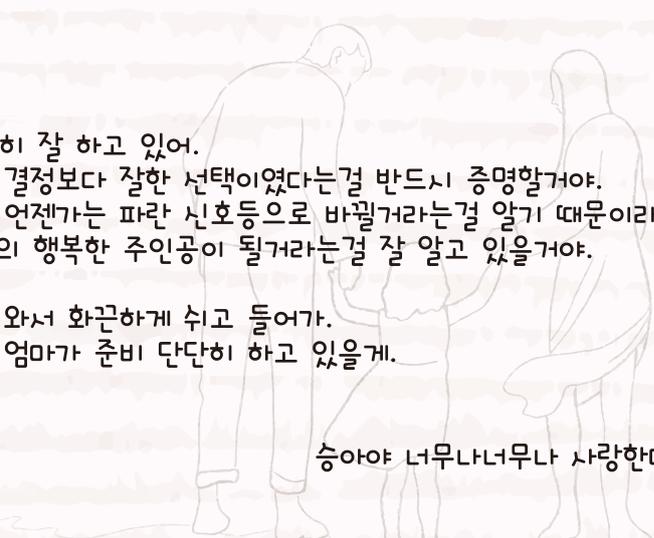
승아야

..... 불안해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넌 충분히 잘 하고 있어. 재수 하기로 결심한 너의 선택은 여직껏 했던 어떤 결정보다 잘한 선택이었다는걸 반드시 증명할거야. 누가 했던말인데 우리가 빨간 신호등을 기다리는건 언젠가는 파란 신호등으로 바뀔거라는걸 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너도 지금의 고단함과 힘듦이 쌓여서 11월의 행복한 주인공이 될거라는걸 잘 알고 있을거야.

휴가 나올때는 교재 한권도 가지고 오지 말고 집에 와서 화끈하게 쉬고 들어가. 승아가 집에 와서 편히 마음껏 쉴수 있도록 아빠랑 엄마가 준비 단단히 하고 있을게.

.....

승아야 너무나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양현아

..... 아버지는 우리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좋은 대학 입학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결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계속 노력해서 채워 가면 되는 거야. 인생은 한방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버가.....

사랑하는 윤서야 ..

..... 날씨가 지난 만큼 성적이 올라 주면 좋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 어느때 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어 최선의 결과는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11월 17일 목요일에 꽃을 피우면 되는 거야 ~~~

휴가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집에 가면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 수만회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해” 하고 했던 말 생각나~~

그때 엄마는 느꼈어 “우리 윤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엄마아빠도 열심히 윤서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겠구나” .....

우리딸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딸 서아야~~^^

.....엄마 아빠는 너가 재수한다고 했을때 우리딸이 실패해서 마음에 상처는 받았지만 또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말에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부모는 자식이 꽃길만 가길바라지만 인생은 꽃길만 갈수 없거든. 그리고 굵기만한 우리딸이 이렇게 강단지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는 자체가 감사하다. 서아야 너무 욕심내서 조금하게 굴지마자.

서아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200일이다. 너를 믿고 하루하루 루틴대로 하다보면 잘 될거야. 우리가 고등학교때 느꼈잖아 남들하고 비교금지, 조바심금지, 나자신 의심금지 서아는 이것만 버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전처럼 잘 할 거야. 높은 산 꼭대기를 보면서 가면 '언제가노' 싶지만 내가 가는 길 걸음걸음을 페이스에 맞추어 걷다 보면 정상에 도달할거야. ^^ .....

2022년 4월23일 서아 책상에 앉아 ^^

효빈짱~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나?

.....이제 수능까지 200일 정도 남는 것 같은데, 혼자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같이 있는 친구들과 열심히 하면 앞으로 남은 200일도 그리 힘들지 않을 거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게, 앞으로 너의 인생에 좋은 동반자들이 될 거라 믿고, 함께 하는 생활이 어찌면 코로나 때문에 못 다한 한창 생활이라는 인생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일거라 생각하니 아버지는 기분이 좋다.

.....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빠도 보고 싶은데. 잘 참고 있을게.

2022년 4월 22일 김효빈 아버가.

### 사랑하는 우리 딸 채빈이에게

..... 네게 편지를 쓰면서 10년 뒤 20년 뒤 훗날 채빈이는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 생각해본다. 힘든 과정을 다시 선택한 후, 더 건강해진 채빈이 최선을 다해 베스트를 한 후, 어떤 선택을 하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스스로 선택에 당당해지고 부끄럼없이 당당하게 맞서길 바란다. 아버지는 늘 채빈이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우리 딸 화이팅! 사랑한다

### 규석아...

누구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 과정에 충실 하라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말을 믿지 않는다.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힘들음이 분명히 있고, 과정의 끝에 있는 결과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과정의 결과는 분명히 좌절스러운 것이 될 터이고, 또 다른 과정의 끝은 보다 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껏 인생을 살면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너의 노력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위한 너의 노력들은 너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비록 어느 순간에는 너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가 오더라도 그마저도 너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의 미래를 완성해나가는 하나 하나의 받침돌이 된다는 것이다.

항상 아버지가 盡人事하고, 待天命하자 라고 너에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 미래가 불안하고, 너의 노력만큼 성적이 안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묵묵히 오늘 하루도 盡人事 하자꾸나.....

사랑하는 아들... 보고싶다

### 준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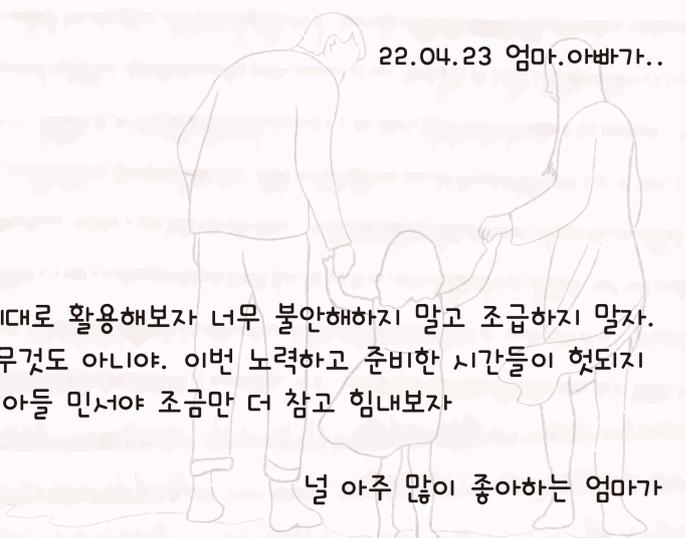
..... 재수도, 기숙생활도, 처음이고 낯선환경에 힘든공부도 해야하지만 수만회학원에 아버지 같은 담임선생님, 코칭선생님들, 그외 수만회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여서 넘 다행이라 생각해. 목표대학들도 좋지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것도 바라볼께. 수능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비상하길 바라.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화이팅~

22.04.23 엄마.아빠가..

### 사랑하는 내 아들 민서에게

.....민서야 아직 시간은 충분해 남은 시간들을 제대로 활용해보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하지 말자. 너는 분명 잘될거야. 남들보다 1년 정도 늦는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노력하고 준비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밥 잘 챙겨먹고 건강해라. 아들 민서야 조금만 더 참고 힘내보자 민서야...고맙고 사랑해~☺

널 아주 많이 좋아하는 엄마가



## 축복의 선물 마이쥘~~♡

사랑하는 우리승준이 잘 지내고있지?

.....엄마.아빠.윤하가 너무 너무 사랑한다♡ 힘내서 네가 계획하는 목표 꼭 이루길 기도한다 친구들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할일도 많고 하고싶은일도 너무너무 많지만 엄마랑 다음휴가때는 더 많이 얘기도하고 시간도 주라~~^^

앞으로 검정고시 수능 넘어야 할 산 들이 많지만 지금아니면 보낼 수 없는 날들 하루하루를 아끼고 알뜰히 너의 시간을 후회없이 보내길 바란다♡

사랑하는 내 복축의 선물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  
화이팅~~♡♡♡♡♡

널 아주 많이 좋아하는 엄마가

## 사랑하는 우리 아들 선우에게~~

.....1월 9일에 입소했으니 3개월이 훌쩍넘었네~~

너를 데려다 주고 오는데 괜히 이상하고 집에와서 너의 빈방을 보니 갑자기 울컥해서 방문을 닫아두었었어. 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선택한거니 엄마아빠는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거지. ㅋㅋㅋ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서 이제 수능도 6개월 남짓 남았어. 하루종일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선우가 할수 있는건 오로지 공부ㅋㅋㅋㅋ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 우리 아들도 아들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성과를 이뤘어서 웃으면서 1년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나눌수 있으면 좋겠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아들 생각하고, 사랑하고....얼마 남지 않은 너의 20번째 생일도 축하해~~~

2022년 4월 22일 엄마가 보냄

## 현주야!

내가 한계로 보지 않는 한, 나에게 한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슬럼프가 오고 나의 한계를 부딪쳤을 때 한계가 아니라며 한계치를 높이다 보면 이겨내지 못할 슬럼프는 없을 것이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가열차게 달려가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시작으로 연결되고 더 강한 노력을 요구하지만, 나만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그때 진짜 강자가 되는 거다. 잘되다가도 안 되기를 반복하면서 부단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수학 9등급임을 당당하게 말하며 일과가 끝나면 입속에서 피 맛이 날 정도로 부단히 노력하여 3등급, 앞으로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너는 참 멋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주변의 어떤 자극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너는 '이현주'로 우뚝 설 것이다.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너는 잘될 것이라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지금처럼만 성장해주길 부탁한다. 너는 부족한 나를 너의 엄마여서 축복이라고 하지만,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참으로 고맙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아빠, 엄마에게는 축복이며 기쁨이고 선물이다.

오늘도 잘 버티어줘서 고맙고, 수고했어.

오늘도 기적을 이루어 낸 너를 꼭 한번 안아주렴.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우주야!

공부가 늦었다고 너무 한꺼번에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목표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워낙 성실한 아들이라 엄마의 기우일 수 있겠지 ㅋㅋㅋ

사실, 집에 있을때보다 얼굴이 야위긴 했지만 밝아지고 무언가 목표가 있고 생기있어 보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멋있고 대견해보이고 기특해보였어. 방탄소년단보다 더 멋있었어 ㅋㅋㅋ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게 있다면 우주 낳은일이라고 이모들에게 자랑하고 다닌거 기억나지 ㅎㅎㅎ

늘 건강하고 룸메이트인 동현이와 친구들과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화이팅하자!! 소중한 하루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는거 알지~

존재자체로 할머니,아빠,엄마의 기쁨이고 보물인 아들 우주야^^ 많이 많이 사랑하고 너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며 축복한다!!

사랑하는 엄마,아빠가 ~

아들 서욱 ...

서욱아! 그러나 어차피 목이가 고심 끝에 결정하고 시작한 재수 생활이니 아빠는 목이를 믿고 응원한다.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앞으로 반만 잘 견디고 이겨내 보자!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 어느덧 종착역이 오겠지. 그러나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한 3번 정도의 고비가 올 수도 있을거야.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비가 올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고비가 올수도 있고, 날씨도 덥고 체력도 안 따라주어서 공부하기가 짜증나서 고비가 올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고비는 목이 너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비야!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자랑스러운 목이가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거라고 아빠는 믿어.. 아빠는 그 고비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부담감에서 오는 압박감이 아닐까 생각해. 목이도 부담감은 갖지 말고 1년 동안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그리고 난 후 결과는 하늘의 몫이라고 생각하자 목아..

2022.4.21. 목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동균아...

부모님 삼행시

부 : 부모님 등골 뿔아 학원비 때박때박  
모 : 모자란 수능 점수 아득해진 대입 합격  
님 : 님들아 뽀뽀해지자 삼수 할까 고민되네

수만희 삼행시

수 : 수만리 타향생활 기숙학원 고달프네  
만 : 만점은 언감생심 이 점수는 낙제라네  
희 : 휘날리는 프랭카드 나에게는 인연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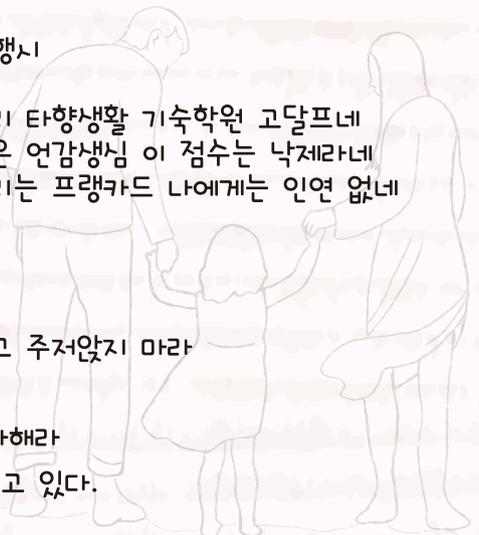
매일 공부에 지쳐 있을 아들을 생각해서 웃으라고 지어보낸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의심하지 마라.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마라

묵묵히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네게는 없다.

아버지에게도 고삼(高3)생활이 있었으니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해라

후회를 남기는 것은 남자의 길이 아니다. 언제나 아들을 응원하고 있다.



# D-200



## 나의 청춘!

## 빛나는 미래를 위한 다짐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시작했던 수능 재도전까지 이제 200일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남은 기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빛나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다만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요!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는 분명 다른 상황에 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처음에 가졌던 불꽃같은 의지와 열정이 조금은 희미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처음보다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얼마나 더 성장한 건지, 진짜 실력이 쌓여 높은 점수를 받게 될지,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좀 공부습관도 잡고 막연했던 것들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벌써 200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조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공부가 많이 남았지만 과연 200일 동안 다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함 속에 묶여 고민만 하고 있을 우리 수만취기숙학원 학생들이 아니죠!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온 공부습관이 있으니 조금 방향한다고 해서 흔들릴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 아니니까요^^



수능 D-200을 맞이하여 처음 가졌던 열정과 꿈을 되살려 보고 나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남은 기간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나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금의 나와 예전의 나를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남은 기간 나의 각오를 스스로 다져보고,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남기다 보면 어느새 힘이 나고 남은 수험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요. 또한 학생들이 누구보다 자신을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고, 꼭 꿈을 이룰 거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의 다짐으로 조금 더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수만휘기숙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성장의 이야기들은 진지하기도 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진솔한 이야기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읽다 보면 기특하고 가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려는 우리 240여 명의 멋진 청춘들의 성장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완성해가는 남은 200일 동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 #나의 꿈, 목표는?

“

꼭 성공해서 떠나간 내 친구들이 돌아오고, 행복해지기, 남 눈치 안보고 쿨하게 살기, 승리자, 쟁쟁해지고 싶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 주변 사람이 응원과 격려해준만큼 보답하는 아이돌 겸 치과의사되기”

”

“

내가 한 선택이라면 오죽히 결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 내가 지금 하고있는 공부와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현재의 목표다.

”

“

어디가서 엄마 아빠가 내 학벌 때문에 기죽을일 만들지 말자.

”

“

올해 하고자하는 바를 다 이룰 '독한년' 되기”

”

“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

”

“

후회없는 삶 살기, 엄마아빠의 자랑되기”

”

“

이번 수능이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년의 노력이 증명될 수 있는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에이 내가 여길 어떻게 지원해' 라고 생각했던 학과, 대학에 이번엔 넣을 수 있으면 좋겠고 모의지원 했을 때, 소신, 도전이 아닌 안전으로 가득했으면 좋을 것 같다.”

”

“

모의고사 성적 상승 곡선 그리기!  
→ 주저하지 말기, 눈치 보지 말기, 당당하게 살기!

”

# #예전의 나를 반성해보자.

“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낭비하는 시간이 많았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이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고 나태해진 내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 잠깐 뿐이었고 달라지지 않았다. ”

“ 나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 이제보니 공부하는 ‘척’ 이었다. 생각해보면 웹툰이 제일 문제... 였네? ”

“ 공부를 대중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점이다. 잘못된 공부방법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잘 오를 리가 없다. 오래 의자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다.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꾸준히만 해도 오를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그 방법으로 공부하지 말아줘. 공부법만 바꿨는데 성적이 올랐잖아... ”

“ 마음도 약했고 정신력도 없었다. 끈기도, 체력도 부족했다. 잠생각이 많다. ”

“ 주어진 시간이 많고 충분히 잘 해낼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없이 하루를 살아가다보니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같은 시간을 비슷하게 보냈다고 생각한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지금도 과거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내고 있다. 살아오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긴시간 동안 이룬게 없음이 후회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 앞으로의 나를 먹여살릴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고, 그에 감사한다. ”

“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 게을러지기 한순간에 가능... 핸드폰 진짜 진짜 많이함. ”

“ 예전의 나는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 일쑤였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데로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다. 그리고 스스로 고쳐야할 점들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고쳐야지 하면서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

“ 2021년의 나는 시간에 쫓기며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다.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완벽하게, 꼼꼼하게, 완전히 해내는 것이 없었고,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많은 문제를 지나치고 넘겼던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모의고사나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치고나면 오답이나 다시 보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내가 틀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겠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틀린다는 것을 간파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반성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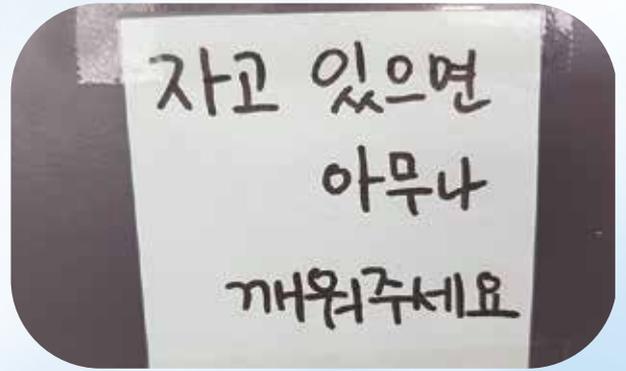
“ 굉장히 막연했고 목표가 없었다. 꿈과 현실의 거리가 한없이 멀다고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포기했다. 그러면서 꿈을, 하고 싶은 걸 점차 지워나갔던 것 같다. ”

“ 정말 끈기가 부족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살지 않았다. 해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하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못했음에도 더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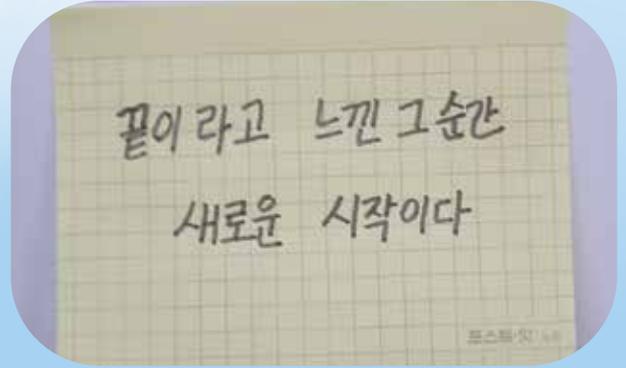
“ ‘이정도면 되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었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고 높은 성적을 바래왔었다. 하지만 재수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내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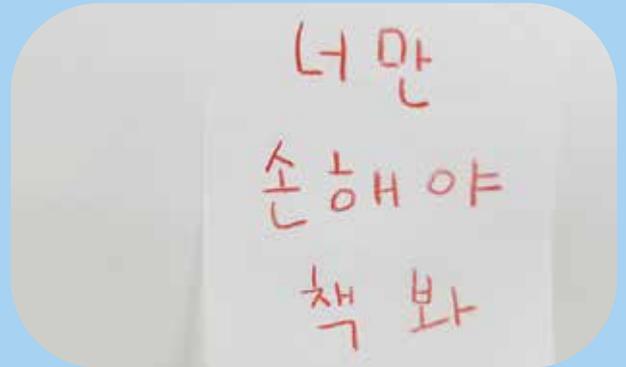
해왔던 공부방식과 마인드로는 내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



꾸준히 해보지 않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조금해하면서 타인과 비교에만 굶곤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간 분배를 해서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보다 좋아하는 과목에 취중하기도 하고, 모의고사 다가오면 그제서야 취약 과목 베퉼치기 하고 했더니 개념이 쉽게 취발되었던 것 같다.. 나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안일함을 갖고 잘하는 주변 친구들의 성적만 보고 나를 깎아먹고.. 쉬운 길만 찾으려하고 잘 안되면 미루고 포기했던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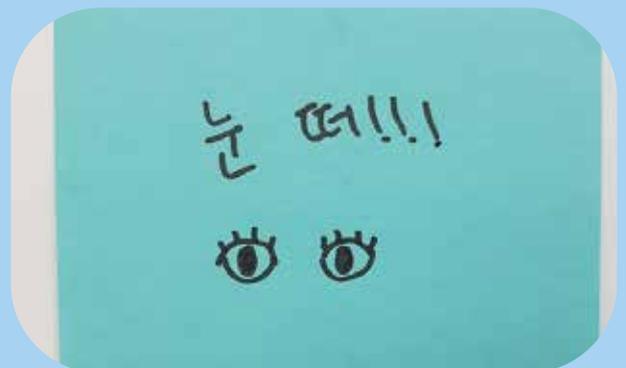
스마트폰과 24시간 붙어있으면서 하루에 6시간은 기본으로 SNS를 한 것 같다. 수능날 전까지 폰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개념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어서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다. 아침잠이 많아서 항상 8시 넘어서 기상하고 실전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능날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던 것 같다.



목표에 비해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공부말고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았고 그것들에 신경쓰느라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했고, 현재의 행복을 더 우선시했다. 보능을 이기지 못했고 감정을 아끼지 못했다. 그리고 너무 안일했다. 부족한 능력으로 내게도 기적이 찾아 올거라고 믿었다. 결국 순간 순간의 잘못된 판단들은 수능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했다.



수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수능에 소홀했고, 특히 수학공부를 하지 않았음. 집에 있는 곰, 뽕, 일을 매우 나태하게 보냄. 친구들과 비교하며 보여주기식으로 공부함.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의 길만을 고집한 것을 반성한다.”

“해이해진 나. “이정도면 열심히 한거지” 라는 착각속에 살아오 나날들이 있던것 같다. 초심을 잃은채 방황하고 자만했던 내모습을 전부 펼쳐낼 것이다.”

“날 괴롭히는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만드 열등감과 불안감이랄걸 모르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열심히 무엇이든 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설명하며 위로를 바랬지만 오히려 위로하던 친구들도 지켜떠나가고 “재도 사는데 뭘” 이라고 하며 내가 위로해주는 대상이 될지도 몰랐다. 항상 값진것들을 노력없이 원했다.”

“분명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많이 달라졌다. 인생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던 노력,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걸 포기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한창 모자라다. 아직도 조금이나마 나와 타협하고 있고 공부 외의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

“예전의 저는 아주 작은 세상속에서 한심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수학시간에 답지를보고 문제를 풀고 영어시간에는 단어장을 보며 단어시험을 보는 등 뻘질거렸으면서 집에서 게임하는 저를 방해하는 엄마에게 하루종일 힘들게 공부하다 오 자신한테 너무하다며 심한말을 하곤했습니다. 집에서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게임만 하였고 누나에게는 싸가지없는 동생, 동생한테는 한심한 오빠였습니다.”

“해야할것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미루는 자신을 갇은 변명과 교묘한 말로 합리화를 하며, 결과에 있어서는 요행을 바라는 교만한 수험생이었습니다.”

“게으르고, 계획을 잘 못세우고 세운다해도 안지킴, 부모님 속 썩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하지 않고 놀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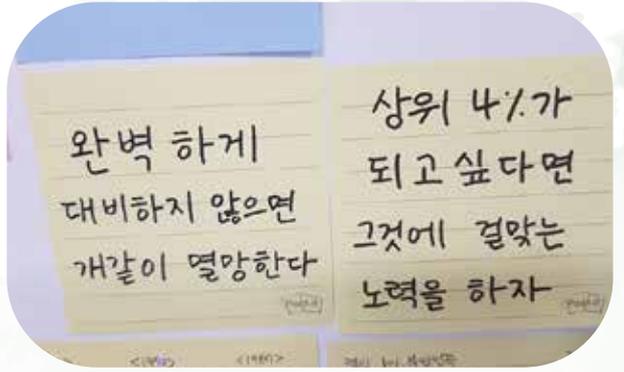
“책상위에 책을 올려두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 그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공부였다. 힘드 하루하루를 보냈으니까 난 열심히 했다고 믿었다. 자신있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즐거웠다. 자신없는 과목은 내일의 나에게 미루곤 했다. 시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열심히 ‘잘’ 했는지는 모르겠다. 돌아가는 열차에 탄 승객은 목적지를 향해 곧게 달리고있다고 믿을 것이다. 예전의 나는 빨리 달리면 성공하는줄 알았다.”

“용기가 없고 계획이 별로없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수많은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했다.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 시험에서 자만을 했고 내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만족해왔던 것 같다.”

“붙은줄알고 준비를 안했다”

“ 항상 적당적당 주의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기싫은 공부는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공부만 했다. 또한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꺼내려고 나를 믿어주지 못했다. ”



“ 하루살이, 나무늘보, 작심삼일 ”



“ 의지가 점점 약해져서 할수있다는 생각보다 안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바로앞에 있는 공부보다 다른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눈에 띄었다. 원하는대로 안되면 더 열심히해서 해내면 되는건데 더할생각 하지 않고 계속 방황해왔다. 이런 일 있더라도 다시 마음잡고 정말 열심히해서 Y반이 아닌 수만취기숙학원에서 수학등할 것이다. ”



“ 나태함과 자기과신에 나를 숨긴채, 수능에 임하는 진짜 나의 실력과 학습상태를 헐떡하며 살아왔다. 운이 좋았던 시험결과는 나의 실력, 결과가 좋지않던 시험결과는 컨디션과 문제퀄러티를 탓하며 미뤄둔 나의 학습문제가 지금에 이르러 거대한 장벽이 될 듯 하다. ”



“ 한문제 풀고 유튜브 두편보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



“ 절제력 부족, 인강에 의존, 진정한 학습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

# #지금의 난 어떻게 달라졌나? (나의 성장모습)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알차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다.

수업을 듣고나면 복습하고 문제도 최대한 그 날에 풀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방식을 바꾸기위해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실천하고 있다.

수학과 국어의 원점수가 엄청 올랐다. 특히 수학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구멍뚫린 개념 바가지에 개념으로 땀질하는 기분. 국어는 독해력이 현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아진 것 같다. 생명과 같은 과탐은 현재 아직 다 하진 않았지만 3모에 비해서 엄청 올랐다. 영어는 단어와 숙어 같은 어휘력이 향상됐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6모를 1차 목표로 하여 원점수를 더 올리고 싶다.

끈기가 생겼고 잡생각을 덜한다.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플래너를 저으며 예전과 다르게 무분별하게 적지 않고 하루 일과를 철저하게 적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시간 체크를 통해 하루 공부시간을 확인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

공부는 하고 목심이 많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긴 하지만 공부할 시간이 늘어남.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할 일을 다 끝내고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며 자습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졸긴하지만 6시간씩자고 하루 7시간 이상 자습한다.

해뜨는 걸 보기 전에 자서 아침에 상대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한다. 손 놓았던 공부를 다시 하려니 힘들지만 무던하게 견디고 있다.

강제적이긴 하지만 매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꼭 먹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불정리 꼭 하고 아침저녁으로 매일 씻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학원 규정 잘 지키고 쉰때 쉬고(많이 쉬지만) 공부할 때 공부한다.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않게 노력하는 중 (전화할 때 울지말고.. 힘들다고 하지말고)

집중력이 높아졌고 공부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중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상시간 6시 30분... ππ) 착한 어린이가 되었다..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매일 매일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쓰는 것 같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

아직도 고쳐야할 마음가짐, 자세가 많이 있다. 하지만 확실히 전에 비해서는 좋은 습관들로 자리가 잡히고 시간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마음가짐이 가장 크게 달라진것같다. 작년에는 이거하나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문제는 왜 틀렸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해 문제를 풀 뒤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제를 풀때에는 특히 수학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중이며 국어는 문제를 풀고나서 지문분석과 정답선지에대해 분석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작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을 이기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게 나란 사람.. 꽤나 멋있을지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다. 지금 해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뿌듯하다.

가끔 운동도 함. 약 잘 챙겨먹음. 계획표 짤. 물 많이 마심. 주변 신경 덜 쓰려고 귀마개 사용. 졸리면 서서 공부.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수업시간에도, 자습시간에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 엄청 졸았었는데,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중 대중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고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끈기와 인내를 길러 공부시간을 많이 늘렸다.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고 푸는데만 굶급하기보다 복습을 계획에서 우선으로 하다보니 잘 안밀리고 하나에만 치중하지 않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다. 작년엔 인강에 쏟는 시간에도 많아서 다 듣고나면 지쳐서 내 공부 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고민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단,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메꾸는데 더 집중하려 하고 시험칠때도 내가 공부한 부분만큼은 맞아야겠단 마인드로 치니.. 전에 보다 덜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거 같아 공부 열고 일어날수있었다. ^^

사실 두 달 공부했다고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되었다. 현재의 나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작년에는 부모님 말처럼 현실을 지시 하지 못했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20살이 되고 나서 그말을 이제야 깨달았다. 수험생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이 길을 걸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계속학원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 멘탈도 깨지고 좌절하고 싶고 힘드 순간은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번 했던 실패기에 더 내려갈 곳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 하다 보니 내년에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계획의 중요성을 알게되었고 문과로 방향성이 확정되면서 1년 → 한달 → 일주일 → 하루 순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짰다. 더불어 시간의 중요성 또한 체감하여 자투리시간까지 철저히 계획해서 수행하고 있다. 점수가 정체되어있어도 공부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실력향상을 나날이 체감하고 있다. 때문에 모의고사나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다.

내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공부한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목표가 생겼고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취약한지 파악하며 공부하려고 한다.

미디어가 차단된 공간에서 생활하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 아침잠이 많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나은 생활패턴을 갖게 됨.

200일동안 매일 16시간 동안 공부해서 3200시간 확보하기. 죽을 만큼 노력해서 성취감 느끼기.

가끔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나를 발견할 때 소름이 돋고 적응이 안되지만 좋다.

일단유 해보자. 한 문제씩 풀어나가면서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에 집중하게 되었다. 어떠한 사고로 이 문제의 답을 골랐지?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지? 여기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는 무엇일까? 등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읽게 되었다. 하면

된다. 단지 하지 않았기에 되지 않을 뿐. 내 목표나 주변인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느리지만 꼼꼼히 나아가는 것이 후에 나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보다 더, 어제보다 더 노력하려고 매일 애쓴다.

수능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음.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함. (상당 신청, 일기쓰기, 운동, 명상 등등) 취약과목 or 파트를 가장 먼저 극복해야한다는 것을 깨달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신천하고자 함. 공부 자체를 즐기고, 좋은 긴장을 유지하는 마인드컨트롤을 연습하는 중... 생활습관부분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니까 뭔가 건강해진 기분도 든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중력이 향상됐다. 수업과 복습에 충실하도록 노력 중이다.

예전의 나와는 달리 공부 계획을 미루지 않고 철저히 지킨다.

수학-바닥부터 시작하자란 마음으로 다시 개념서를 읽고 개념강의를 들었다. 작년에 정말 개념과 원리없이 공부했었던걸 느낄 수 있었다. 국어-소홀히 했던 기출분석을 열심히 했다. 틀리면 그냥 넘기지 않고 이해될때까지 읽었다. 오개념더러라도 이해될때까지 분석하기.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목표도 생겼다. 예전에는 계획 없이 잡히는데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일별, 주별, 달별 계획을 세워 따르려고 노력한다.

인강보다는 오늘 배운 수업 복습과 과제 및 예습을 더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ime Table을 이용한 시간관리 ↑ 학과 선생님들과의 주기적인 피드백으로 성적 ↑

공부의 '기' 도 모르는 내가 '기' 운 알게 된 느낌. 하면 할수록 할것만 보인다.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졌다. 특별한 삶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걸 알게되었다. 더 밝아졌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정해진 계획대로 공부를 하고 수업 예습, 복습,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자습 시간에 친구들이 쉬고 있어도 '내가 더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다.

기피했던 공부도 시작해보면서 공부가 쉬운 일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니 조금씩 공부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당당해지고 싶어졌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고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펴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책을 펴고 있다. 지금의 난 공부를 하고 있다.

예전의 나를 반성해보자를 열심히 적은 것과 달리 지금의 저는 꿈이 생긴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인들과 말할 때 비속어를 안쓰려 노력하고 있으며 자습시간에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게임시간을 줄이려고 그 시간에 나의 꿈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에게는 친근한 동생(예의바르고 착한 동생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오빠로서 인식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의 시간을 참아가며 끈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게을러 지는 거는 많이 고쳐졌고 스스로 공부계획을 세우고 지킬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 같다. 여전히 부모님 속을 썩이지만, 정말 이제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

목표가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게임이 아닌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다.

잠을 정말 많이 잤으며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영리하게 공부하려고 한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시간의 밀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수능까지 끝내야 할 목표치를 한달단위로 주단위로, 하루단위로 나눴다. 그럼 오늘 내가 얼마나 공부해야 할지 가능할 수 있었다. 할당량을 쉬는 시간까지 채워넣진 않았다. 모의고사나 휴가여파를 잘 받는 편이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시간이 필요했다.

12시간 이상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보적이 없었는데 나의 계획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재수생활을 하면서 나의 꿈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게 되었다. 또한 정신적인 성숙을 하게 된 것 같고 인생에 대한 조금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나보다 잘 보 친구들은 정말 많고, 내가 시험을 잘 봐도 나보다 잘 보 친구들은 전국에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재수생이 되니 현역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공부하고 있다.

3모 이후 시험결과로 다시 정심차리고 공부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어 time table에 적은 계획대로 하루의 공부량을 채우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내가 쌓아올라오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앞의 경쟁자들과 목표만을 보려고 하고 있다.

수학에 어느정도 자신이 생김.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1등급 받아봄. 국어 점수가 평균 60점대에서 70~80점대로 바뀜

어느 일을 하기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조언을 구한다. 플래너를 작성하여 목표를 이뤘는지 점검한다.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며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려고 노력함.

목표가 생겼고, 내 위치를 알게 되어서, 내 장래를 위해 노력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성실함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수학개념서 2회독~3회독 하면서 엉덩이도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잠생각을 잘 안한다. 집중하는 시간도 늘어난 것 같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몇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자기암시로 생각을 컨트롤하며, 잠재의식이 나의 가장 강력한 내부힘조자가 되도록 한다.

열심히 시키는 것 하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목표의식이 생겨서 더욱 동기가 부여된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내 상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아직 주변과 비교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할수있다는 것을 믿는다.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오랜기간 이 공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와서 어느정도 끈기가 생겼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해야 할 일들을 위클리 플래너에 적고, 다른 일일 플래너에 공부한 시간들을 적는다. 문학 독서는 마더텅으로 다 맞더라도 선지마다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고 틀린 부분은 하나하나 오답해나간다. 수학을 처음부터 개념강의를 듣고, 수업 때 했던 단원들을 복습 or 개념잡기를

한다. 문제가 안풀리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써서 풀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도 안풀리면 해설을 보거나 질문을 한다. 사람은 아는 내용이라든가 계속 복습하고, 사람수업진도부분까지 마더텅을 본다.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나의 위치와 실력을 점검하고, 약점부분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고 정면승부로 진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조금 더 어렸을때는 내 앞날과 미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나 자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려고도 안했지만 현재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매일 내 자신을 개발하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야 되었다고 느낀다. 휴대폰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 수업시간과 자습시간엔 집중하여 공부하고 있는 나! 수업 복습과 개인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나!

옛날엔 국어, 생명을 버렸는데 이제는 하고 있다

꿈을 쫓다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목표설정 후 공부하고 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다. 남들에게 쉬울 수 있는 결정이지만, 나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고 결정을 내리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지는 데 정말 많이 고단했다. 그래도 한번 그 고비를 넘긴 것 같아서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하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정한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한문제풀고 판짓하던 것이 없어서 계속 문제풀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개념에 기초한 학습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의 점검(모의교사, 주말테스트)을 목표로 한 주, 한 달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는 태도가 생겼다.

기숙학원 들어와서 강제료라도 공부하는중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성장하는 중



# #남은 기간 나의 각오는?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능이 끝난 이후 부끄럼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을만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해진다. 목표가 확실해야 그걸 이루기 위해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목표지향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담고 싶다고 생각한 분이 남긴 인터뷰 답변이다. 나도 남은 200일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각오를 하고 싶다. 차근차근 성장하자. 한번에 1등할 생각 하지말고.

서두르지 않고 배운 내용은 다시봐도 까먹지 않게 철저히 공부하겠다! 수능 날 후회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게 공부하겠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기에 시간을 버리는 일 없이 계획적으로 운용하며 귀찮다고 대중 넘기며 살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겠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도록 하겠다.

쉬는 시간에는 확장실만 가기, 별점 0점 유지, 점심, 저녁 시간에 산책 그만하고 독서실에서 영어공부 하기

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7개월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기숙학원에서 잘 버티고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면서 모의고사에서 성장하는 사람되기.

수업복습 철저히 하고 매일 국,수,영 공부하기, 램구는 되도록 수업 들은 날 복습하고 주말 중 하루에는 꼼꼼히 정리하고 문제 풀기

후회하지 않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기!

수능을 치고 낮을 때 “이거 조금 더 할걸...”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후회없는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해냄’ 외칠 수 있게끔 매일 하나씩 성취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일을 처음처럼, 긴장하기.

중심을 잃지 않고 일회성비 하지 않으면서 공부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간절하게 공부하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남은 200일 동안 치열하게 공부해서 후회 없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 24시간을 42시간처럼 최선을 다하자

비품없이 완벽하게 공부하기. 시험장에서 진짜 필요한 공부블라기

열정을 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힘들어도 목표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조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하나 차근 차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금방 다시 일어나서 걸다가 결국 달릴 것이다. 결국은 지나갈 감정에 발목 잡혀 내 노력을, 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내가 임시를 한 번 더 준비하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되는 것이기에 나는 무엇이건 해낼 수 있다. 운동선수가 다룰 건 몰라도 ‘독기’ 하나만큼은 뚫는다. 나는 운동선수이다.

확실히 3월 모의고사 치고 나니까 시간이 점점 더 빨리가고 있단게 느껴지는데 남은 200일 동안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없도록 밀도있게 과목 골고루 잘 분배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고, 잘 안되는 부분들도 해결해야겠다. 점점 따뜻해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지치지않도록 운동도 하고 페이스 조절 잘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긴장감과 마인드를 찾도록 해야겠다..! 수학과 과학에 더 집중하고 국어, 영어도 꾸준히 감 잃지않게 열심히해야겠다.. ;)

①회피하지 말고 부딪혀보자 (편생각 금지!) ②성적은 바로 오르는게 아니니 늘 열심히하자! (하면 된다) ③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기 (고집떠우지말고.. 제발 하라는데대로 하기) ④영단어·숙어 외우기 (잠을 죽여서 자기)

앞으로 약 200일 조금 남게 남았는데 후회 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인서울로 23학번 새내기를 보낼 그때까지 힘들고 지치고 잠절해도 멈추지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꼭 성공할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수능날에 빛을 보자!

여태까지 해오 것처럼 철저히 계획짜고 수행하여 좋은 성적이 아닌 최선의 노력을 위해 공부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시간에 내가 못하면 그 만큼 더 열심히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자.

중반 마음가짐 잊지말고 끝까지 성실히. 올해 11월은 웃으며 지낼수 있도록 노력하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여기서 나갈 때 후회만 없었으면 좋겠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무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않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거임. 작년처럼 대중해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게 후회없이 열심히 할거임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봤을 때 떳떳하다고 후회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일동안 매일 16시간 동안 공부해서 3200시간 확보하기. 죽을 만큼 노력해서 성취감 느끼기

평정심유지하며, 나를 믿고, 곳곳이 앞으로, 이대로.

지난 시간동안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오자.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하고, 절실하게 공부하고, 하루하루를 뽀뽀하게 보내자. 한마디로... 더 독해지자^^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 강철멘탈로 이겨내자.

빨리 수학 개념을 다 끝내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싶다. 수학 점수를 꼭 올리겠다.

나 자신에게 떳떳한 매일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후회하지 않는 결과 만들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을 하자.

복벌 위해 출사포 던지는 제갈량 마인드 but 결과는 다르게 성공으로, 마속도 없이 반드시 복벌 성공하겠다. 외골수처럼 살며 때로는 지켜워져도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겠다. 너의 비웃음 환호성으로 바꿔줄게

앞으로 수능까지 8개월 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수능까지 한번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좌절감을 느낄때마다 최대한 빠르게 극복해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내게 필요한건 휴식과 같은 당근이 아닌, 채찍이다. 적어도 6월까지는....!

나는 나를 믿는다. 그때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미친 듯이 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할 수 있고 합격증에 당당히 내 이름을 써넣겠다.

앞으로 남은 200일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할땐해할 부모님을 위해 동생하나 잘됐다고 말해줄 누나를 위해 자랑스러운 오빠가 있다고 좋아할 동생을 위해 꿈을 이루고 행복해 할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며 조금해하기보다 심을 씨앗이 제대로 지랄 수 있게 기다리고 꾸준히 물을 주듯이 현재 실력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 나중에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를 전보다 조금 더 활렐하고 잔뜩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올한해를 불태울 것이다.

시간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다.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겠지 어제의 나보다 강한 내가 되고 싶다. 어제를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하고 싶지않다. 오늘을 기억하며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성장했던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죽지 않을 정도로 해보자.

내년 수만휘 멘토로 참석하기

매순간 더 절실하게, 부끄러운 나의 과거, 나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불태우자.

올 한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힘들어도 그냥 하자!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오늘 기준으로 수능일이 208일 남았는데,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루하루를 툴툴 보내지 않고 선생님 말씀대로 꾸준함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해나가야겠다. 남은 약 200일 동안 실망과 좌절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잘 극복하며 공부해서 올해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더 힘들꺼같다. 힘들어야 정상이다.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집중할 때 집중하고 기쁠 때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실천할 것이다.

작년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를 다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고쳐나가면서 성장해야겠다. 수만휘기숙학원에 들어오 목적을 항상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다.

남들과 같은 시간을 공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 남들과 같은 시간을 공부하여도 명확한 계획과 컨디션관리로 더 많은 효율을 내야한다고 생각함.

작년 11월 18일 오후 6시에 했던 후회들, 반복하지 않도록 나의 커리어와 장래를 위해,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노력으로 하겠다.

정말 열심히해서 중앙대 경영 나와서 메가 스터디 환급 받을거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줄렁이는 굵어 죽는 한이 있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오전히 나로서 존재하고, 올 한 해 나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더 열심히 해서 수능 때 원하는 성적 받고 운동 열심히 해서 원하는 학교에 장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는 것, 자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초점 맞추면서 살기. 수업 열심히 듣고, 모르는 거 질문 쌓아두지 말고 바로 하기. 행복이 찾아오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기. 또 다시 이별이 찾아오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길, 당당하게 마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많이 부족한 만큼, 채워가려고 악착같이 독하게 배우기. 두 번 다시 후회는 없고 두 번 다시 기회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다시 상처주지마. 무너지지 말고 단단해져!”

안생은 도화지를 채워가는 만년필과도 같다. 지난 시간동안 도화지에 새겨진 과거는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다. 남은기간, 도화지의 여백에 후회가 없도록 완전연소하는 내가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수능을 임하고자 한다.

시작했을때의 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꼭 이루어내겠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항상 찾아오겠지만 이겨내자. 내가 원하는대로, 생각한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자.

포기할거라면, 시작도 안 했다.

성공하는 소수가 되기 위해 다수가 하는 행동을 자제하기

확대한 버린다. 악으로 버린다. 강으로 버린다.

일단 6모 때 원하는 점수를 받아낼 것이다 국1 수1 영2.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 둔 것들을 중간에 수정없이 완수해내고 말 것이다.

코피를 쏟아보자! 손목을 부러뜨려보자!

남은 212일 약 7개월 남은 기간동안 나의 꿈.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더 할 각오는 없기 때문이다 ^^

어떠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절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수능 날까지 불태우자.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추억이라고 생각될만큼 성공스러운 한해를 만들자.

하루만 생각하며 내일엔 없는 것처럼 살자. 그렇게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고 일년이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력 하나는 내가 1등 먹을 것이다.

##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무한한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꼭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나 믿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 대신 결과로 증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난 딸이었지만 앞으로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

올해 제가 원하는 대학에 꼭! 갈게요!! 사랑해요 ♡♡♡

성공해서 갚으게

수능 끝나고 해외여행 가자~♡

항상 나를 믿고 지지해줘서, 기숙학원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꼭 나를 믿어주고 집에서 응원해줘~ +가끔씩 오는 편지 고마워.. ㅎㅎ 뜻밖의 선물 같아..

나 진짜 최선을 다할게

엄마, 아빠의 지원이 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수를 좋은 환경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년동안 저뿐만아니라 엄마, 아빠, 오빠 모두 마음고생할텐데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그만큼 좋은 결과를 보답할게요. 항상 절 믿고 응원해주셔서 또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많이!!

엄마 아빠 공부시켜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도 내 선택에 확신이 들지 않아 걱정도 많아 쉽지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끝까지 열심히 해볼게 사랑해♡

응응! 내가 해낼게!! (짱긱★) 우러가죽 못찌다!

항상 제가 하는 선택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덕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고싶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한다. 꼭 해낼테야. 건강 챙기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대학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안힘들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요 막내 딸이 해낼겁니다! 올해의 끝과 내년의 시작에는 제가 가장 빛나고 행복할겁니다. 목심 부려볼게요. 믿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쉽지않은 많은 정시공부를 다시 하려는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줬지만,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건 아니니까 더 감사하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있어 사랑해♡

달마다 나가는 도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알라뷰 '3' ♡ 수능 끝나고 해외여행 가자요 ;)

재수한다고 마음먹은 딸 믿고 재수학원에 보내줘서 고마워!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깊이있는 공부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 ㅎㅎ

수능만 생각하면 벌써 긴장되는데.. 엄마 아빠 님아 똑똑한 딸은 똑같은 실수 안하는거 알지? 좋은 결과 내볼게! 내가 많이 사랑해♡

월 300씩 내는 우리 부모님 수능 날 그것 보다 더 한 값으로 잘 봐서 인사를 잘해달라 응원해줘! 여기서 잘 지내니까 걱정 하지 말구

지금도 잘하고있고 앞으로 더 잘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끄럼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죽을 각오로 할게

가성비 넘치는 딸이 되겠습니다.

나조차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끊임없이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힘든 순간 다시 나를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직 많이 어리숙하고 부족해서 조금 불안할 수 있겠지만 믿을 준 만큼 보답할 수 있게, 물론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늘 보고싶어요!

수능 끝나면 우웨이랑 같이 여행갑시다! 그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잘 지내자구요~

너무너무보고싶다! 내년에는 같이 여기저기 여행다니자. 내가 너무 보고싶어도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를 책임지는 믿음직한 딸이 될게요! 김명성, 위승환 파이팅

이번 수능을 잘 볼게! 재수 하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작년에 떨어져 울해 또 쓰게 해서 미안해 울해는 더 열심히 할게 항상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꼭 좋은 결과 가져갈게!

내 결심을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D

항상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사랑하고 많이 보고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긴 말 필요없이 결과로 보여주겠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 믿고 투자해주신만큼 고배울 풍 지점에서 잘 진입하셨다. 4월은 개미털기, 세력들 공매도다. 6,9 모교 실적 발표 후 수능만점으로 숫세력 털고 끝내겠다.

1년동안 학원비 내느라 힘들텐데 울해만 고생해줘 내년에 꼭 대학가서 앞으로는 홀도하며 살게.

나도 엄마도 아빠도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한번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어깨 올라가게 해줄게 성공해서 2배, 3배로 갚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아빠 여전히 못미덥고 마음에 들지 않으며 한심한 아들이지만 꼭 변해보이겠습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잘 하고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성공에 누구보다 기뻐해주시며 실패에도 위로와 격려를 먼저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원이 언제나 큰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지금도 미안하고 앞으로 미안하지만 세웠던 목표 달성해서 성장한 아들이 돼서 돌아갈게.

살아있어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 언제나 내 우상이었던 형, 늘 내 편이 되어주어서, 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

아닌척해도 기대하고 있는거 다 알아,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날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누구 아들인지 보여줄게. 엄마 아들이 제일 좋은 곳 들어갈게

'내가 잘 돼서 소고기 사줄게' 1+등급으로, 엄마는 명품가방, 아빠는 슈퍼카 사줄게.

항상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전한 내 편은 어느 누구도 아닌 가족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믿고 맡겨주신, 앞으로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오빠 보며 자랐어도 혼자 스스로 너무 잘해주는 동생, 이번 기회에 잘난 가족 두고 싶었던 아들내미도 한 건 하겠습니다. 임만 털어대지 않고, Show & Prove 보여주고 증명하겠습니다.

꼭 시립대 이상가서 메가팩스 환급 받을게요. 열심히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주변 친구들에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오빠가 될게...)

제가 아직, 나잇값을 못해서 많이 부족하고 유연한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날의 다툼거 다 풀지도 못하고 요 며칠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정말 열심히해서 말대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너무 어김없어준 공에서 미안해. 엄마아빠가 더 좋은 진로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준건데 내가 그걸 빨리 깨달지 못했어. 그래도 지금을 잘 적으려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중이야. 물론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다시한번 나를 위해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철없는 아들이지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데 휴가는 나갈거예요 ㅎㅎ..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해보고 싶다는 제 의견에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환할 때면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응원해주시는 아빠,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항상 챙겨주는 엄마, 어떻게든 동생 웃게하는 우리 형 너무도 고맙고 사랑해요~♡

# #우리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각자 목표 이루자.

우리 1반 친구들 다같이 파이팅하자! 성공해서 다들  
임시탈출해보는거야!!

저희 모두 성공해서 내년엔 밝은 모습으로 서울에서 정모해요 ♡

애들이 우리 열심히 해서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 내서 잘 살자 ㅎㅎㅎ

지금 힘들지라도 수능날까지 힘내서 원하는 대학 가자!!

함께 공부해서 각자 원하는 대학에 갑시다.

또 1등해서 일요일에 노래틀어요

단합 잘 되는 금쪽이들만 1반! 힘든 시기 다같이 힘내서 이겨냅시다!!!!  
자습하는데 제가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ㅠㅜㅠ  
등해서 꼭 음악도 듣고 밥도 1등으로 먹어야징~ >< 우리모두 아자아자  
파이팅!♡

수능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결과 얻자 ~.~

1반 친구들아! 1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가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다! 후회없는 시간들 보내자!

♡애들이 귀여워♡ 꿩잡아 잘 될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꿩잡아 잘 될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않아 널 힘들게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잔에 마셔 버려자 꿩잡아 잘 될거야 ♫♪  
<슈퍼스타 노래 가사 中>

수능까지. 같이 가보자고.. 우리가 해냄=

다같이 열심히 해서 웃으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의 우리의 청춘은 더 빛나고 행복할테니까 힘들어도 같이 버티고  
열심히 해서 각자 가지고 들어오 목표를 이뤄서 내년엔 웃으면서  
맘편하게 수만휘벗꽃말고 밖에서 예쁜 벚꽃보자 ;)

미리 축하해! 원하는 대학 합격하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Legend 1반아!!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보자! ㅎㅎ 파이팅

끝까지 살아남아 성공하자!

파이팅!!! 꼭 다들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같이 꼭 좋은 대학, 원하는 학과 갈 수있게 열공!

서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잘하고싶다라는 마음 하나마우 같아서 여기  
1반에 모인것이겠죠. 나를 포함한 1반 여러분들 모두에게 2022년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맛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같은 한해로  
기억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최대한 '덜  
아프고', '무해하게' 가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모두 다 같이 원하는 꿈 이룹시다. 수만휘 기숙학원에는 딱 1년만  
있는걸요...

수능 잘 보고 시험장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오시다. 그 어느누구보다도  
환히 웃자고요. H반 Him내자! ;)

끝까지 열심히 해서 목표 대학 그 이상으로 가자! 싸우지말고 동글게  
지내라.

H반 파이팅 1년 끝까지 함께 가보자

다같이 웃으면서 지금을 추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자. H반 파이팅!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며 좋은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노력하십시오. 다들 좋은 분들이지만 역시 성육이 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살려주세요)

내년에 다시보다면 대학가에서 만나자 이곳에서는 다시 만나지 말자!

열심히좀 하자 서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하던 애들도 눈치보면서 다같이 하게될거야 파이팅!!!

다들 진짜 고생많아요. 내년엔 대학에서 사계절을 볼 수 있게  
힘들시간이겠지만 다같이 포기하지 말고 의사의사해서 파이팅합시다!

바스락거려서 미안

높은곳에서 보자구요.

최강 H반 파이팅! 수능 씹어먹자!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치지 말고 노력해서 전부 다 같이 후회없는 7  
개월 보냅니다. 꼭 성공합시다!

올해 열심히 해서 다같이 보인이 목표한 학교 가자.

올해가 끝나고 서로 소식 얘기할 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위해 노력하자

무저, 상승, Y반, 수능 끝나고 해변대 들어가자. 지금 잘 하고 있다.  
동생들도 존경한다. 어떨 때는 동생들이 형같다. 많이 배운다.

1년동안 힘들어도 서로 보며 의지하고 견뎌낼 Y반 친구들, 형들.  
후회없이 공부해서 내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놀다가 마주칩시다.  
적어놓고 보니깐 또 각오만 거창한 새끼같네

생존이 목표면 표류지만 보물을 찾아떠나면 모험이야!

Y반 자습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쪽가서 좋은결과 만들고 서울에서  
만나자!

Y반 전우들, 다함께 승리하여 서울에서 봅시다. 함께 해주어 늘  
고맙습니다.

내가 할말은 아니지만.. 고생없이 되는 쪽은 없습니다. Y반도 고생한  
만큼 누구보다 환히 떨것이니 다들 조금만참고 힘입어!

수능날까지 함께 달려가 나갈 때 학원에 이별 걸고 나가요! 파이팅

좋은 자습분위기, 최선을 다하는 우리반 모두 각자 마음속의 서울대에  
진학하길!

올해 T반이 성저, 벌점 그리고 그 외의 모든면에서 가장 우수한 반인걸  
보여주자고요.

애들이 끝까지 남아서 다같이 힘내하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라.

알뜰하게 시간을 사용하자

다들 착한 것 같아서 고맙다. 파이팅.

달을 향해 쏘자 빛나기도 별이 될테니까

Are you ready?

백공!



# #수만취기숙학원 & 교직원에게 한마디!

열심히해서 장학금 받을거예요!!!!

남은 200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수만취에 한 획을 그겠습니다.

항상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친절하게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성적이 인상적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종교있는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별로 안착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안착 “♡

점차 지워나갔던 것 같다.

밖에 걸려있는 현수막 자리. 하나는 제깬니다. 꼭 자리 비워두셔야해요. (비장)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옆에서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7일까지 잘 버티다못해 즐기다가,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성장해서 이 학원 장학금 타갈라니까 지켜봐주시죠!

공부하다보면 내가 맞게 하고있나 고민도되고 불안하기도 한데 선생님들 수업과 상담하면서 다시 페이스도 찾을수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순간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만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수업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숙제 밀리지 않는 학생이 되겠습니다당..♡

어떻게든 성적 올려주시려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당♡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수만취기숙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능날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정성들여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할 거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쌤들 좋아요! 밥 맛있어요!

제가 앞으로 자거나 졸면 때려 주세요. 성공하기 싫냐고 말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교무실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급식 아주머니 아저씨, 사강 선생님,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열심히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서포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기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

남은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힘들어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때마다 포기하지않게 인도해주세요.

아직 배울게 많고 부족한 저이지만 선생님들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힘들 수험생활의 한줄기 빛과 같은 분들입니다. 수업시간에는 마치 친자식이나 조카를 가르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고 무언갈 잘못하고있으면 똑바른 길로 갈수있게 조언해주시며 가끔은 마치 친구와같이 함께 웃어주십니다.

열정적인 수업과 학생 한명 한명을 귀하게 여겨어 주시는 관리에 큰 감사를 가지고 매일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사고 안치고 잘하겠습니다.

부족한점 많은 학생이지만 관심갖고 챙겨주시는게 느껴져서 감동입니다ㅠㅠ 힘들 때 많이 의지합니다용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보길 바랍니다!

11월까지 수만취에 남아있고 싶어요

학원의 아웃풋보다 학생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게, 이 학원 오고 1달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임쌤께 대꾸해봐야 보여드리지 않으면 믿지 않으실걸 알아서 대답은 안했습니다. 이 조건 이 환경 그리고 쌤 두고 서울이 뭐잘났다고 가진것도 없는 놈이 가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서 한상수의 마지막 수제자다운 화려한 커리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경해마지않는 상수쌤부터 모든 선생님들,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넛으로 함께 싸워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수만취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주는 모습! 멋져요!

앞에서 잘 끌어주시기에 뒤에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 (수김) 김학림선생님 인터뷰



'수학'하면 으레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수포자라는 말도 생길 정도니 수학은 과연 수험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학문인 걸까요?

고통을 이겨내야만 정복이 가능한 걸까요?

나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나를 한계 짓는 과목일까요?

실제로 수험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과목이 수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수만휘기숙학원도 정규 수업과 코칭 수업 외에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수학 지원팀이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과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없애고 수학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도 수학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수만휘기숙학원의 최강 수학팀의 한 분인 열정맨 김학림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에요.

수김선생님의 수업 시간엔 항상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수만휘기숙학원 교육관 1층 강의실 사이 복도를 걷다 보면 강의실 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가지각색인데요. 주로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한창이다 보니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주로 들려오고, 학생들이 대답 소리도 들려오곤 합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의 까르르 웃음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우리 수김 선생님 수업은 항상 쾌활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할 만큼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오곤 합니다. 또 학생들이 교무실에 질문을 하러 올 때도 수김선생님과 케미가 확실히 좋아 보여요. 학생들과 항상 즐겁게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우리 멋진 수김선생님은 수만휘기숙학원의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네요. 수김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고 수학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어볼게요.



#나는 학창 시절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곧잘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이 점점 하락했고, 증명되지 않은 옛날 점수로 또래 친구들에게 인정 아닌 인정을 받는 그런 평범한 수학 점수의 학생이었죠. 그러다 고3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낮은 점수였고, 그간 저에게 수학 내용을 질문하던 친구들과 비교해도 낮은 점수였죠. 큰 충격이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였다. 내가 수학을 사랑하게 된 건.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거 같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 문항을 재 분류하고, 기출을 분석하며 고군분투했었던 거 같아요. 같은 기출문제집을 지우개로 지워가며 4번 정도 풀었어요. 결국 8월에 만점을 한 번 받았고, 자신감이 극에 달했던 거 같아요.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고 점수 오르는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구분	배점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	석차(변환)	석차(변환)	석차(변환)
영역	120	106.0	56	102	4	6	6
수리	80	80.0	64	77	1	1	9
필수	48	37.5	53	39	4	10	5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왜 이런 것도 몰라?'라고 자주 얘기하는 예전 동료 강사분이 있었어요. 천재적이시고, 정말 아는 것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항상 학생들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는 수학 때문에 울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난 경험은 큰 자산인 된 거 같아요. 내 수업을 듣는 제자들이 당연히 '모를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강의할 것이고, 우리 수만휘 학생들이 알 때까지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단언컨대 수만휘 학생들은 할 수 있습니다.



#200일을 남겨두고 전하고 싶은 말

어차피 제 제자들이니깐, 말 놓겠습니다.^^  
 너희들이 가려는 길이 쉽지 않고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태해지려는 무기력보다 승리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본능이 더 셸 거라고 확신한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 이 악물고 버티길 바란다. 잘해주어 고맙고 조금만 더 고생해 주길 바란다.





Q1. 정규 수업과 코칭 수업의 콜라보로 성적 향상을 이루어내는 우리 수만휘기숙학원의 학습 시스템은 최강인데요. 선생님의 수업에서 정규 수업과 코칭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정규 수업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전체적인 수능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업이라면 코칭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취약점을 다뤄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코칭은 과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기에도 편해서 더 밀착해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Q2.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간결하고 고상한 정제되어 있는 풀이도 좋지만, 조금은 투박하고 전투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 내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풀기보다는 본인의 루틴대로 철학을 가지고 문제를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Q3. 수업을 하실 때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신가요?

처음 학생을 가르친 것은 친구 동생이었습니다. 친구 동생은 실업계를 다녔고 대학 진학을 위해 내신 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문자를 받았고, 문자 내용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오빠 덕분에 점수가 올랐어요'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까지 내 제자의 점수와 저의 금전적 이득의 무게를 재 본 적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직접 문제를 풀어낼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Q4.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건 수만휘 학원의 여러 관계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진심으로 그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공부 체력을 키워 뒀으면 합니다. 수만휘는 늘 그렇듯 답을 찾을 것입니다.

Q5. 마지막으로 인생 명언 소개해 주세요!

"항상 축복과 같은 선물은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담겨서 온다"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보자기를 풀면 축복과 같은 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수만휘의 많은 제자들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frac{\partial^2 \psi}{\partial t^2} = a^2 \Delta \psi \quad X = \frac{-b \pm \sqrt{b^2 - 4ac}}{2a + 3b} \quad \begin{cases} -x + 2y + z = 6 \\ 3x + 4y - z = 10 \\ 5x + y + 5z = 1 \end{cases} \quad \begin{aligned} (a+b)x + ab &= (x+a)(x+b) \\ 2 \log_a(\sqrt{x}) - \log_a(3x+2) &= 0 \end{aligned}$$

$$E = mc^2 \quad ax^2 + bx + c = 0 \quad y = f(x) \quad \begin{aligned} x^3 - a^3 &= (x-a)(x^2 + ax + a^2) \\ A^2 + B^2 = C^2 \end{aligned} \quad \begin{aligned} \cos(a-b) &= \cos a \cdot \cos b + \sin a \cdot \sin b \\ \cos(a+b) &= \cos a \cdot \cos b - \sin a \cdot \sin b \\ \sin(a-b) &= \sin a \cos b - \cos a \cdot \sin b \\ \sin(a+b) &= \sin a \cdot \cos b + \cos a \cdot \sin b \end{aligned}$$



# # 입시연구소 2023학년도 대입논술전형

수만휘기숙학원에서는 5월부터 논술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입논술전형은 수시전형 중 하나로서 수험생이라면 수시와 정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좋은 입시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이므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4월에 인문/수리논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5월 1일부터 첫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만휘입시연구소 임상호 소장님과 함께 2023학년도 대입논술전형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학년도 대입논술전형에 관해서 수만휘기숙학원 입시연구소 임상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우선 입시에서 논술전형은 무엇인가요?

논술전형은 수시전형 중 하나입니다. 수시의 학생부전형은 고교기간 동안 쌓아온 학업과 기타활동을 평가한다면, 논술전형은 대학 자체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2. 그렇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논술전형이 갖는 의미는요?

논술전형은 학생부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대학별 시험을 통해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수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이 수능 이후 시행되는 논술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목표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Q3. 논술전형 지원시 점검사항이 있겠네요.

첫째, 다른 수시전형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시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학생부교과의 경우 8:1정도, 학생부종합은 10~15:1, 논술전형은 50:1입니다. 따라서, 다른 수시전형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논술시험시행 일정

넷째, 논술 유형

이렇게 4가지 사항은 체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 수시 다른 전형의 지원가능성입니다.

수시모집에서는 6회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전형들을 고려하여 논술로 지원할 대학의 수준과 횟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안정지원을 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자신의 꿈에 맞는 대학에 소신 지원을 한다면, 논술전형으로는 도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논술준비를 위해서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논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이 논술 실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논술고사는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져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논술전형 실시일

수험생입장에서 수능 이전에 치르는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수능 준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 짧은 기간에 많은 대학이 논술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시험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고사 시행일을 고려해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 논술유형

논술고사는 대학마다 제시자료 구성, 논제의 유형, 고사 시간, 답안 분량 등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유형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별 시험에서 영어 제시문이 있는지, 도표나 그래프, 그림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지, 과학논술이 포함되는지 등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의 논술 유형을 판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요약, 비교대조, 논증, 논술, 서술, 설명, 분석, 비판 등 대학마다 자주 출제하는 논제 유형이 다르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되도록 자신의 강점에 적합한 유형이 많이 포함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논술전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안내해주세요.

특징1. 2023입시에서는 큰틀에서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기존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던 가천대, 수원대 등이 새로이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큰틀에서는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징2.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은 줄고 논술고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술전형의 전형요소는 논술과 학생부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논술과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2022학년도와 같이 유지하고 있지만, 덕성여대와 성균관대는 논술 100으로 변경하여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총 6개 대학(건국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한국항공대)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반영비율이 낮아지고 논술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논술성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므로 논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특징3.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2022학년도에 이어 2023학년도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인문),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이화여대(자연), 중앙대(인문) 등이 등급 합을 낮추거나, 선택과목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반면에, 경북대(자연)과 숭실대는 등급 합을 높이거나 영어영역을 반영하는 등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징4. 논술전형에 의학계열 모집이 추가되었습니다.

성균관대가 의예과 5명, 가톨릭대가 약학과 5명을 신설하여 선발하는 반면 일부 대학들은 모집인원을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하였습니다. 의학계열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자연계열의 일반 모집단위와 달리 높게 설정하고 있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논술전형의 특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 수만회기숙학원도 5월1일부터 인문논술과 수리논술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시간에 인문논술, 자연계열 논술과 관련하여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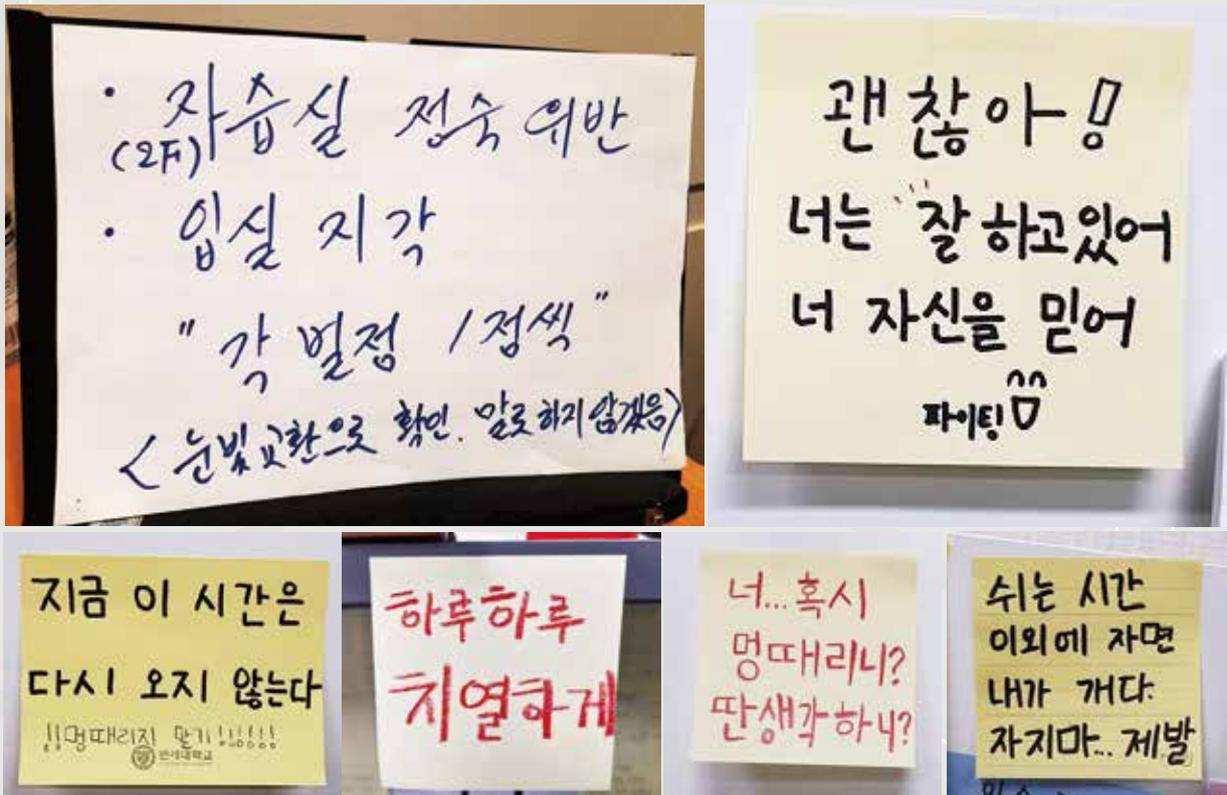
## # 죽도록 공부하기 자습실



수만휘기숙학원의 오전 시간은 늘 그렇듯 열정적인 정규수업으로 채워집니다. 정규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배우고, 학습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법, 전반적인 공부법, 세부적인 공부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코칭수업을 통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거나 반드시 채워야 할 취약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정규수업과 코칭수업은 내가 공부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배우는 단계이며 주어진 과제를 활용하여 수업에서 배운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실력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자습을 통하여 배운 것을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수업을 많이 들어도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은 충분한 자습을 통해 이루어지며 곧 수업만큼 자습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내 성적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자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실감합니다. 좋은 인강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소화하지 못하면 음악을 듣는 것과 다를 게 없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자습시간이 주어진다해도 내가 집중해서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공간에서 스스로 몰입하여 충분한 시간 학습한다면 어느 누구든 실력은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수만회기숙학원 교육관 2층에 자리한 자습실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녀분리된 자습실은 35명 내외 학생들이 각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공부합니다. 넓고 높은 칸막이와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학습공간으로 만들어 몰입할 수 있습니다. 평일 최대 11시간, 주말 최대 13시간 동안 자습실에서 공부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열공사진을 소개합니다.







# 4월 모의고사

수만휘기숙학원에서는 매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어 4월에는 이투스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수험생이 되어 정식으로 2번째 모의고사를 치게 된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 두세 달 남짓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른시기이기도 하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평소에 선생님들이나 멘토들이 조언을 해줄 때 모의고사 성적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결과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분명 나의 학습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나의 노력과 열정이 바로 결과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은 성적결과가 꽤 실망스럽고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 아직 나의 실력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에 대한 중간점검 및 시간관리 연습, 이후 방향성에 대한 자료로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믿고 결과가 빛이 되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2~3주 후 성적표가 학원으로 배송이 됩니다. 성적표는 각 가정으로 학부모님께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며, 과목별 원점수 및 등급에 관한 성적데이터는 수만취기숙학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하루 꼬박 열심히 모의고사에 임해 준 우리 학생들을 많이 격려해주세요! 진짜 무대에 오르게 되는 수능 당일을 위해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리허설 무대에 서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 모두 시험보느라 수고하셨어요!



# 출제경향 분석

2022년 4월 고3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는 2022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에 맞게 출제하였다. 난이도는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였으며,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변별을 위하여 고난도 문제를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독서는 인문, 사회, 기술, 독서 제재에서 출제하였고, 문학은 현대시와 수필 복합,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에서 출제하였다. 문제는 자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이해와 추론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다.

## ■ 내용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비교

구분	공통과목												선택과목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현대시	고전 시가	극	수필	현대 소설	고전 소설	화법	작문	언어	매체	
4월 이투스	문항 수	3	6	4	-	4	-	6	3	-	현대시 복합	4	4	5	6	5	6
	배 점	7	13	9	-	9	-	13	7	-	9	9	11	13	11	13	
	합 계	4지문 17문제 38점						4지문 17문제 38점						11문제 24점		11문제 24점	
2022 수능	문항 수	3	6	4	-	4	-	6	3	-	현대시 복합	4	4	6	5	5	6
	배 점	7	13	9	-	9	-	13	7	-	9	9	13	11	11	13	
	합 계	4지문 17문제 38점						4지문 17문제 38점						11문제 24점		11문제 24점	

※ 음영은 복합 지문임을 표시함.

## 1.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출제 경향

### 난이도

-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였다. 이번 시험의 국어[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평균은 75.6점이고, 국어[언어와 매체]의 원점수 평균은 77.1점이다.

[난이도별 문항 수와 원점수 평균]

과목	난이도별 문항 수					원점수 평균
	A	B	C	D	E	
국어[화작]	21	11	5	3	0	75.6
국어[언매]	26	12	5	2	0	77.1

### 특징 및 출제 경향

- 난이도는 2021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였으며,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난도 문제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출제하였다.
- 독서 영역에서는 능동적 독서의 자세에 대해 다룬 글, 동양 전통의 유기체적 자연관 및 유기체적 자연관을 비판한 정약용의 사상에 대해 다룬 글, 적자 재정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 다룬 글, 허프만 코딩의 원리와 효용성에 대해 다룬 글을 지문으로 출제하였다.
-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시 「황혼」(이육사)과 「울릉도」(유치환)를 수필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신영복)와 엮어서 지문으로 출제하였다. 현대 소설은 「나무」(박완서)를 지문으로 출제하였고, 고전 소설은 「소대성전」(작자 미상)을 지문으로 출제하였다. 고전 시가는 「연행가」(홍순화)와 「안락성을 지나며」(김병연)를 엮어서 지문으로 출제하였다.
- 화법 영역에서는 말하기 방식 파악, 자료 활용 방안 이해, 청중의 반응 이해, 발화 의도 파악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 맥락 이해, 초고의 반영 내용 파악, 상호 평가의 이해, 작문 전략 파악, 고쳐 쓴 이유 추론, 자료 활용 방안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 언어 영역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현상 이해, 표준 발음법 이해, 올바른 문장 표현 이해,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이해,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이해, 매체 자료의 활용 의도 이해, 매체의 특성 파악, 매체의 표현 방식 파악,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 2. 선택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 비교 (표준점수 컷 및 원점수 구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어 전체	표준점수 컷	125	120	114	107	98	89	78	64	64미만
국어[화작]	원점수 구간	100~96	95~93	92~88	88~83	83~77	76~70	70~62	62~52	52~0
국어[언매]		100~91	93~87	89~82	85~77	80~70	73~62	66~54	59~45	48~9

\*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선택과목이 다르거나 공통과목/선택과목의 득점 비율이 다를 경우 획득하는 표준점수와 그에 따른 백분위,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고난도 문항 BEST

구분	내용
독서 16번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보기>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였다. 지문을 통해 허프만 코딩의 구현 원리를 이해하고, <보기>에 제시된 허프만 트리를 해석해야 했다. 정답을 제외한 오답 반응률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허프만 코딩의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코딩과 디코딩, 가변 길이 코드와 접두어 코드 등 기술 영역의 전문적인 용어가 생소했을 수험생들에게는 주어진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학 34번	<보기>로 주어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였다. <보기>에서는 두 작품의 창작 배경과 관련하여 작가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보기>와 관련해 두 작품은 모두 외지에서 경험한 고초가 드러나 있다. 이를 근거로 ④의 뒷부분만을 보고 해당 선지가 옳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하되, 작품의 맥락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

## 4.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살펴보는 학습 전략

### 공통 16번 학습전략

이러한 유형은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결과를 해석해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 독해력이 가장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기출 문제의 지문을 활용해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문제 풀이 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나가며 수능까지 꾸준히 독해력을 키워 나간다는 자세로 수험 생활에 임할 필요가 있다. 독해력은 하루아침에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독해력을 쌓아야 한다. 정확한 독해력을 갖춘다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보기>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공통 34번 학습전략

이러한 유형은 외적 준거인 <보기>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에 출제된 <보기>는 작품 이해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므로, 작품을 읽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보기>를 먼저 읽은 후 작품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문제에서처럼 <보기>를 통해 작가의 상황과 현실이 작품 창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했다면, 작가의 심리나 태도를 염두에 두며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모의고사 문제 풀이 후 복습을 통해 <보기>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본다면 작품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출제자의 시각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과 같은 고전 문학의 경우는 작품 수가 한정적이므로, <보기>의 내용을 학습해 두는 것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 출제경향 분석

4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는 2023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2 수능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에 맞게 출제하였다. 시험의 난이도는 2022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하였다.

## ■ 내용 영역별 문항 수

### 공통 과목

구 분	수학 I			수학 I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4월 이투스	4	3	4	3	4	4

### 선택 과목

구 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4월 이투스	5	3		4	4		5	3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출제 경향

### 세부 내용

#### 난이도

- 이번 시험에서 수학[확률과 통계]의 원점수 평균은 45.7점, 수학[미적분]의 원점수 평균은 59.8점, 수학[기하]의 원점수 평균은 50.6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난이도별 문항 수와 원점수 평균]

과목	난이도별 문항 수					원점수 평균
	A	B	C	D	E	
수학[확통]	7	5	7	4	7	45.7
수학[미적]	12	6	6	2	4	59.8
수학[기하]	8	5	8	4	5	50.6

#### 특징 및 출제 경향

-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자신이 취약한 부분과 고득점을 받기 위해 더욱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약간 어렵게 출제하였다.
- 공통에서는 킬러문항으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삼각방정식의 활용(15번)과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문항(22번)을 출제하여 상위권을 변별하도록 하였다.
-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순열을 이용하여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항으로 케이스를 분류하여 각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해야 하는 문항(30번)을 킬러 문제로 출제하여 최상위권을 변별하도록 하였다.
- [미적분]에서는 구간별로 다른 식을 가지는 함수가 방정식에 활용되는 문항(30번)을 출제하였다.
- [기하]에서는 포물선과 타원의 정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고난도 문항(30번)을 출제하여 상위권을 변별하도록 하였다.

### 선택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 비교 (표준점수 컷 및 원점수 구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수학 전체	표준점수 컷	131	123	116	106	96	85	75	65	0
수학[확통]	원점수 구간	100~88	86~80	80~71	73~62	63~51	53~40	43~30	32~21	22~0
수학[미적]		100~83	84~74	76~67	69~57	58~47	48~36	38~26	27~16	18~0
수학[기하]		92~82	81~74	73~67	67~57	57~48	47~37	36~27	27~17	17~5

\*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선택과목이 다르거나 공통과목/선택과목의 득점 비율이 다를 경우 획득하는 표준점수와 그에 따른 백분위,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난도 문항 BEST

구분	내용
공통 22번	조건에서 함수 $g(x)$ 가 $x=-1$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댓값이 포함된 함수인 $ f'(x) $ 가 $x=-1$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아야하므로 $f'(-1)=0$ 이 되어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함수 $f(x)$ 의 대략적인 식을 구할 수 있고 $x=-1$ 을 제외한 $f'(x)=0$ 이 되는 $x$ 의 값을 $\alpha$ 라 할 때, $x=\alpha$ 에서는 함수 $g(x)$ 가 미분가능하므로 $f(\alpha-1)=0$ 임을 이용하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확통 30번	조건 (가)에 의해 $f(1)=1$ 임을 알 수 있고 조건 (나)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므로 치역이 $\{1, 2, 3\}$ , $\{1, 2, 4\}$ , $\{1, 3, 4\}$ 인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를 구해보아야 한다. 각각의 경우의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순열과 여사건을 이용하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미적 30번	함수 $f(x)$ 가 연속함수이므로 $x=2n$ , $x=2n+1$ 에서 각각 연속이어야 하므로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하여 수열 $\{a_n\}$ 을 구할 수 있다. 수열 $\{a_n\}$ 을 대입하여 구한 함수 $f(x)$ 는 닫힌구간 $[2n+1, 2n+3]$ 에서의 그래프가 닫힌구간 $[2n-1, 2n+1]$ 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이다. 이를 이용하여 방정식 $f(x)=sx+t$ 가 무수히 많은 실근을 가지려면 $s=1$ 이고, $t$ 의 값이 최대인 경우는 곡선 $y=f(x)$ 와 직선 $y=x+t$ 가 접할 때임을 이용하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기하 30번	포물선의 정의와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항으로 두 가지 이차곡선의 성질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주어진 조건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포물선의 초점 중 한 점이 타원의 초점임을 이용하여 $a$ 와 $b$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타원의 방정식을 구한 후 두 점 B, Q에서 $x$ 축에 수선을 내려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살펴보는 학습 전략

#### 공통 22번 학습 전략

절댓값이 포함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에 관한 문항은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다양한 문항을 통하여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자.

#### 확통 30번 학습 전략

케이스를 나누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항은 자주 출제되는 문항으로, 각각의 경우를 구할 때는 중복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자.

#### 미적 30번 학습 전략

구간에 따라 식이 다른 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하는 문항은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다양한 문항을 풀어 보도록 한다.

#### 기하 30번 학습 전략

두 개의 이차곡선이 통합되어 출제된 유형으로, 각각의 이차곡선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한 고난도 문항은 항상 출제되므로 잘 정리해 두도록 한다.

# 출제경향 분석

4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는 2022 수능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하였으며, 듣기 영역에서 17문항, 읽기·쓰기 영역에서 28문항을 출제하였다.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였고,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 ■ 내용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비교

구 분		듣기	대의파악	세부 사항	어법·어휘	빈칸 추론	간접 쓰기	장문 독해	합계
4월 이투스	문항 수	17	7	4	2	4	6	5	45
	배점	37	15	8	5	10	14	11	100
2022 수능	문항 수	17	7	4	2	4	6	5	45
	배점	37	15	8	5	10	14	11	100

- 문항별 배점은 2점 35문항, 3점 10문항으로 구성함.

## 1.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출제 경향

### 세부 내용

#### 난이도

- 이번 시험의 원점수 평균은 74.2점이었으며, 12.1%가 1등급(100~90점)에 포함되었다.

[난이도별 문항 수와 원점수 평균]

난이도					원점수 평균
A	B	C	D	E	
25	8	8	4	0	74.2

#### 특징 및 출제 경향

- 2022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문제 유형을 반영하여 출제하였다.
- 이번 시험은 2022 수능 영어 영역의 문제 유형을 충실히 반영하여 출제하였다. 대의 파악 문제는 밑줄 친 어구의 의미 추론을 포함하여 총 7문항을 출제하였으며, 도표의 내용 이해, 안내문의 내용 이해, 내용과의 일치 여부 판단 등의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는 총 4문항 출제하였다. 어법·어휘 문제는 각각 1문항씩 출제하였다. 간접 쓰기 문제는 총 6문항을 출제하였는데, 이어질 글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와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각각 2문항씩, 무관한 문장을 추론하는 문제와 문단의 요약 및 적용 문제는 각각 1문항씩 출제하였다. 장문 독해 5문항도 모두 2022 수능 유형을 따라 출제하였다.
-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빈칸 추론(33번, 34번), 이어질 글의 순서 배열(37번),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 찾기(39번), 장문에서의 어휘 추론(42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절대 등급별 구분 점수와 등급 인원 누적 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 구분 점수	90	80	70	60	50	40	30	20	20미만
누적 인원 비율	4.8	22.6	47.3	69.5	84.6	92.8	97.3	99.3	100

## 3. 고난도 문항 BEST 3

구분	내용
31번	이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로, 22%(④)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문제는 음악을 만들거나 음악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한 어린 나이에 특별한 적성을 보이는 아이들만이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보충할 수 없다는 관점이 교사들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특정한 어린 나이에 음악적 감각이 있는 아이들만이 음악활동에 참여하도록 선발된다는 예시를 통해 음악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적성을 보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음악적이지 않은 것은 교육이 보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글의 내용을 파악한 후, 빈칸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고난도 문제였다.
37번	이 문제는 주어진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고르는 문제로, 35%(③)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문제는 체지방을 대신해 먹이를 비축하는 새에 대해 비축된 먹이의 접근성과 새의 기억력에 따라 비축된 먹이는 체지방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어, 가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맥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였다.
39번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는 문제로, 39%(⑤)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앞부분의 내용을 지칭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뒤의 문장에서는 새로운 주장이 나와야 한다. 주어진 문장의 This는 ⑤ 앞의 세계화가 국가 권력을 재편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고, ⑤ 뒤에는 Rather로 이어져 세계화는 국가 권력이 행사되고 지정학이 발생하는 맥락을 재정의하는 세계화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였다.

## 4.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살펴보는 학습 전략

### 34번 학습 전략

‘빈칸 추론하기’ 문제에서 빈칸은 주로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에 위치한다. 따라서 글의 주제·요지를 파악하여 빈칸의 전후 문맥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글의 주제·요지를 찾고, 스스로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글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 빈칸 앞뒤 문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이용하여 정답을 찾게 하는 문항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글의 논리적 구조와 문장 간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37번 학습 전략

‘이어질 글의 순서배열하기’ 문제는 글의 논리적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서가 될 수 있는 관사, 대명사, 연결어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평가원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체 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독해를 하면서 한 문장 또는 단락 뒤에 무슨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예상해 보며 글의 흐름을 꼼꼼히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 39번 학습 전략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 찾기’ 문제는 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전후 문장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사,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 등의 단서를 활용하여 전후 문장의 연결이 의미상 자연스러운지, 논리적 흐름이 단절된 곳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평소 독해를 하면서 전후 문장이 논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 5월의 수만위 풍경





# 일정 안내



## 4월 모의고사 성적표 및 안내장 발송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2주후 성적표가 학원에 배송됩니다.  
학원에서 수령후 안내장과 함께 부모님께 발송됩니다.



## 5월 휴가 안내

2022. 5. 14.(토) ~ 5. 17.(화) 남아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 휴가 출발 복귀시 학원 버스 이용 안내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대중교통 이용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휴가 출발 복귀시 학생과 학부모님의 편의를 위하여 학원 버스를 운영합니다.  
차량 이동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휴가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청주공항

- 청주공항 1번 게이트 앞에서 탑승과 하차 진행

### 대전방향

- 출발 : 학원에서 출발하여 대전복합터미널, 대전역 동광장에 하차
- 복귀 : 대전역 동광장에서 출발, 대전복합터미널 맞은편 선샤인웨딩홀 앞에서 탑승, 학원 도착

### 서울방향

- 출발 : 학원에서 출발하여 동서울터미널 하차
- 복귀 : 동서울터미널 탑승, 학원 도착

(자세한 위치와 시간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세요)



## 주소지 이전

2022. 5. 전입신고 1차 접수 신청을 받았고 이전은 5월 11일 이후에 이전 진행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전입신고는 5월 휴가이후 2차로 진행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진행

2022. 5. 23.(월) 13:00 ~ 17:00 수원지방병무청에서 진행합니다.



## 5월 이투스 모의고사 24일

2022. 5. 24.(화) 성적표는 이투스에서 약 2주 후 학원으로 배송되며  
받으면 학생에게 1부가 전달되고 부모님께 1부가 발송됩니다.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22. 6. 9.(목)



## 2학기 시작 6월 20일(월)



## 6월 휴가안내

2022. 6. 16.(목) ~ 6. 19.(일) 남아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 경찰대 원서 접수

특별전형 : 2022. 5. 9.(월) 10:00 ~ 5. 19.(목) 18:00

일반전형 : 2022. 5. 20.(금) 10:00 ~ 5. 30.(월) 18:00

1차 시험 : 2022. 7. 30.(토)



## 사관학교 원서 접수

원서접수 : 2022. 6. 17.(금) 09:00 ~ 6. 27.(월) 18:00

1차 시험 : 2022. 7. 30.(토)



## 소식지 6월호는 7월호와 통합하여 7월에 발행됩니다



SUMANHUI